장편실화

인생결차

인 훈

금성청년출판사
주체101(2012)

차 례

제 2 장
운명을 맞받아 어디로든지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가 걸어온 한생을 돌이켜보면 력사로 될것이다.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매 사람들의 한생을 음미해보면 능히 제나름의 세계를 펼쳐 하나의 장편으로 엮을수 있으리라. 하물며 뜻을 품고 한생을 강렬하게 달음질쳐 살아온 사람들에게 있어서야.

지금 내앞에는 한장의 신문이 있다.

2002년 12월 20일부 《트리뷴》이다.

《트리뷴》은 자기 신문의 자랑인 비슈와나스에 대한 기사를 그의 사진과 함께 실었다. 사진은 박사메달을 앞가슴에 드리운 초상이였다. 그러고보니 그의 3대는 다 박사였다. 쌀리그 람 샤르마박사, 바드리 나트 취바박사, 비슈와나스박사…

흐르는 세월은 한때 그 신문기사의 집필자로 세상에 알려지던 이름을 오늘은 그 신문기사의 주인공으로 다시 세상에 떠올린것이였다.

세계적인 정치론평가이며 광고기자, 저명한 사회활동가로 명성을 떨치기까지의 그 인생행로가 60년전 《트리뷴》의 조수기자로부터 시작되였다는것이 어찌 그 신문의 자랑으로 되지 않을수 있으랴.

《인터라즈》의 명성으로, 더우기는 시대의 사상의 기수로 나라의 이름을 빛내준 비슈와나스를 《트리뷴》은 잊지 않고있었다.

그 신문기사를 읽는 나에게 비슈와나스는 말하였다.

《세상에 완전무결이란 없소.》

그가 그렇게 말하는것은 그 기사의 제목이 바로 《완전무결한 광고기자》였기때문이였다.

어떻게 인생을 설계하고 오늘에로 줄달음쳐왔는가고 묻는 나에게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운명은 맞이하는것이 아니요. 나는 운명을 맞받아나갔을뿐이요.》

맞받아나간 그 운명의 흔적을 말해주듯 그의 사무실 한쪽벽면에는 세계각국에서 받은 100여개의 급수높은 훈장과 명예칭호, 학위증서들이 주런이 걸려있었다.

그렇다.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창조하는것이지 맞이하는것이 아니다.

비슈와나스는 자기 사무실창문으로 거리에서 붐비는 교통을 내려다보면서 《인생은 자기 행로에 있는 각이한 기회들의 종합이요.》라고 철학적으로 말하였다. 자기가 바라는 모든것을 운명에 내맡기지 않고 자기의 의지로, 노력으로 쟁취해온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의미심장한 말이였다.

나는 그 기사를 읽어내려갔다.

완전무결한 광고기자

76살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비슈와나스는 자기는 모든 간난신고와 투쟁하면서 어려운 길을 걸어왔다고 하였다. 이 나이에 그는 자기에게 새로운 장이 펼쳐졌으며 자기자신을 갱신할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리였다고 말하였다. …

정문앞에 메르쎄데스벤즈를 세워놓고 값비싼 안락의자가 있는 편안한 응접실도 마다하고 비슈와나스는 자기의 낡은 사무실에서 고심하기를 좋아하였다.

그는 《나는 나에게 차례지는 모든 기회들을 안고 열심히 일하였을뿐이다.》라고 말하였다.

성공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는 자기가 추구하는 거래건에는 아주 정열적이고 완고하며 자기의 모든 손님들을 쟁취한다.

사람들은 그의 직업적인 거래에 대하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생기는 인간관계에 대하여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한다.

《그는 자기의 거래건을 포기하지 않으며 하루 24시간동안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내밀군 하였다.》

사람들은 또한 광고업을 조직하는데서 발휘되는 그의 정열에 머리를 숙이군 한다.

그는 인디아전국광고사 리사회의 창립자이며 델리광고구락부 창건자이다. 그의 고심어린 노력이 모든것을 성공에로 이끌어왔다.

비슈와나스는 나라가 분렬된 직후 뉴델리에 살림집 하나 살만한 돈이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그는 인디아뿐아니라 세계각지의 30억루삐에 해당되는 광고업을 이끌고있다. 이것이 그의 업적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있다.

그의 회사인 《인터라즈》는 1987년에 명성높은 클리오국제상을 받은 첫 광고사였다. 이 상은 광고분야에서의 오스카르상과 맞먹는다. 《인터라즈》는 또한 《림까세계기록집》에 오른 유일한 회사이다.

비슈와나스는 개인적으로 금년 4월에 국제**김일성**상을 수여받았다. 그보다 앞서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로부터 사회정치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이전 쏘련정부로부터 국제친선상을 받은바도 있다.

현재 그는 도꾜에 본부를 둔 주체사상국제연구소의 리사장으로 일하고있다.

흥미있는것은 오늘 세계적인 사회활동가로 명성높은 그가 10대의 어린시절부터 라호르에 있는 신문사 《트리뷴》에서 조수기자로 사업을 시작한것이다. 당시 이 신문사의 총경영자였던 피. 엘. 쏜디는 그에게 집필과 함께 기업을 할것을 권고하였다. 비슈와나스는 이 조언을 받아들이였고 기업에 착수하였다.

《그때는 상표도 많지 못하였으며 광고들은 더우기 적었다. 오늘 우리가 볼수 있는것과는 달리 그때의 활동은 아주 명백하였다.》라고 그는 그때를 회상하였다.

그는 자기가 사업에 대하여 배우고있던 시절들을 돌이켜보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때는 청량음료도 국내산이였고 판잡 케스리라고 알려져있었다. 1948년까지 코카콜라는 무료로 봉사되였다. 이때 티베트눈이라고 하는 얼굴크림도 있었다. 그것이 아주 인기를 끌군 하였다.

내가 이 일을 하기 시작한지 1주일만에 나는 우리 회사를 위해 5건의 거래를 성사시켰다.》

나라의 분렬로 하여 그는 모든것을 다시 시작하여야 했다. 그는 뉴델리로 와서 직업을 찾아 거리를 헤매였다. 희귀하고도 희귀한 기회가 그에게 차례졌다. 그때를 회상하여 그는 말하였다.

《어느날 내가 쏘베트쎈터가까이를 거닐고있을 때 어떤 사람이 다가와 말을 붙이였다. 그 사람은 〈쏘베트 땅〉이라는 잡지를 발간하고싶어하면서 그런 일을 맡아 수행할수 있는 주재국사람을 찾고있었다. 내가 그 일을 맡았다.》

이렇게 되여 비슈와나스는 쏘련사람들의 잡지를 발간하는 사업에 착수하게 되였다. 구성으로부터 인쇄, 지어는 편집까지도 포함하여 거의 모든것을 그가 혼자서 감당하였다.

쏘련사람들은 그의 정열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였다.

1962년에 그는 첫 인디아광고회사인 《인터라즈》사무소를 모스크바에 개설하였다. 이미 런던사무소는 개설되여있었다. 비슈와나스와 그의 회사는 국제적인 수준에 도달하였다. 오늘날 그 회사는 200건이상의 국내 및 국제거래를 감당하고있다. 그 회사는 국내외에서 각이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수백회의 전람회도 조직하였다.

비슈와나스는 《세월은 빨리도 흐른다. 이 분야에서 목을 조이는 경쟁이 아주 많기때문에 이 경기에서 이기기가 힘들게 되였다. 누구나 다 원가이하의 할인가격을 요구하였다. 광고사를 더는 운영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였다.》라고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회사업무가 잘되고있다.》고 한다. …

이 기사를 읽고 나는 《트리뷴》을 찾아갔다. 그것은 비슈와나스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알고있는 사람들이 오늘도 거기에 있다는 산증거로 되기때문이였다.

오늘의 《트리뷴》은 챤디가르에 있다.

그날의 피. 엘. 쏜디는 이미 없어도 그날에 찍어간 우리의 주인공의 발자취가 거기에 있고 또한 선배들의 흔적을 추억하는 후배들이 있음으로 하여 나는 이 글을 계속 써내려갈수 있었다.

1. 기자학과 광고업은 평행으로 간다

가장 먼 곳을 가장 가깝게 바라보는 청춘!

생이 아름다울진대 그 청춘은 또 얼마나 아름다우랴.

20살이였다. 비슈와나스가 대학을 마치고 사회에로 진출하던 그때는.

모두 나래를 펴고 날아갔다. 누구는 상업쎈터로, 또 누구는 주식회사로…

법학을 전공한 알따브 후쎄인은 희망대로 법관이 되였다. 학업성적이 좋았던 그는 라호르재판소에 순조롭게 들어갔다. 그는 변호사가 되였다.

비슈와나스는 변호사 알따브 후쎄인을 축하하였다. 학업을 마치고 여기저기로 떠나가는 젊은 가슴들은 터질듯이 끓고있었다.

나는 어디로 갈것인가?

비슈와나스의 마음은 맑고 푸른 하늘의 흰구름처럼 둥둥 떠가고 있었다.

우선 그의 앞에는 샤르마가문의 광활한 령지가 펼쳐져있었다. 지평선끝까지 물결쳐간 이랑들이 어서 오라 손저어 부르고있었다. 거기에 가면 숱한 농군들이 엎드려 절을 할것이며 한평생 그 땅을 타고앉아 가문의 주인으로 군림해있을것이였다.

라챠만 다스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마지않았다. 그것은 장차 가문을 이끌고갈 미래의 주인이 바로 비슈라고 생각하고있었기때문이였다. 그것은 비슈와나스가 가문의 장손이기때문에서만이 아니라 그가 활동적이며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있다고 인정되기때문이였다.

그러나…

아무리 광활한 가문의 령지가 그의 앞에 펼쳐져있어도 젊은 가슴속에 자리잡은 희망의 두루미는 보다 넓은 세상을 향해 날고있었다.

신식교육을 받은 그의 가슴속에 퍼덕이는 두루미는 가부장적

인 봉건의 구름이 짙게 떠도는 그 땅의 어둠을 박차고 만리창공에로 그냥 날고만 있는것이였다.

희망의 눈길을 저 멀리 아득한 창공에 얹지 않는다면 결코 아름다운 날개를 펼칠수 없으리라.

령지는 현재 큰할아버지가 관리운영하고있지 않는가.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도 거기에 있지 않는가. 령지는 나 아닌 딴사람도 관리할수 있는 일이다. 또한 그 령지에는 이 세상을 실컷 돌고돌다가도 언제든지 내려와앉을수 있는것이고…

그의 힘과 열정은 누를래야 누를수 없는 샘의 분출마냥 마구 솟구쳐올랐다. 한껏 퍼덕이는 희망의 나래는 어디로든지 훨훨 날아야 했다. 운명을 맞받아 그 어디로든지!

대학 마지막 1년을 특별학과목으로서 기자학을 배운 그의 머리속에는 《취재》, 《보도》, 《론평》, 《출판》과 같은 어휘들로 가득차있었으며 따라서 그의 가슴속에는 세계의 여론을 대변하고 조정해보고싶은 욕망이 꿈틀거리고있었다. 또한 대학기간 상업금융을 전공한 그에게 있어서 《화폐류통》, 《신용체계》, 《은행기구》와 같은 경제술어들도 매우 친숙한것이였다.

비슈와나스는 생각했다. 발전하는 사회에 맞게 기업체들에서 은행과 가지는 거래의 절차와 실무 그리고 경제원리들을 잘 알고 그것을 자기의 직업에 활용하면 보다 큰 능률을 낼수 있다고.

그것은 명명백백한 생활의 진리와도 같은것이였다. 그래서 그는 상업금융을 전공하였고 또 기자학을 배운것인지도 몰랐다.

그렇다. 인류의 발생과 때를 같이하는 가장 오랜 생활분야이며 인간사회존재의 항구적인 물질적토대인 경제의 제원리들을 모르고서야 그 무슨 일에선들 완전한 성공을 기할수 있으랴.

가문의 령지를 다스리는 일도 마찬가지일것이다. 토법에서 벗어나 장차 신식기술, 신식경영체계를 도입해야 더 큰 수확을 걷을수 있을것이였다.

기자활동도 마찬가지일것이다. 사회생활의 기초인 경제를 모르면 이 사회를 깊이있게 해부할수 없는것이였다.

그 모든것을 생각하고있는 비슈와나스였다. 그야말로 젊은 비슈

와나스의 사색은 포괄적이였고 상상의 한계는 끝이 없었다.

가슴이 벌어지도록 마주오는 세월을 안고 비슈와나스는 《트리뷴》에로 발걸음을 옮겼다.

기다렸다는듯이 반가웁게 그를 맞이하며 피. 엘. 쏜디는 말하였다.

《기다렸네. 나는 자네에게 기대가 가네. 글에서도 그렇고 신문의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는 언제나와 같이 웃고있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직업적인 기자생활, 사회활동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하였다.

신문사의 발판은 이미 닦아져있은것으로 하여 그의 출현은 모두를 기쁘게 했다. 일부 약삭바른 기자들에게는 위압감을 주기도 했지만.

그는 그 누구의 눈치를 볼것도 없었고 시작부터 자기의 주견을 가지고 자기의 성격대로 운명을 맞받아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는 첫달로임을 어머니에게 봉투채로 내놓았다. 두르가데비는 네가 처음으로 탄 로임이기때문에 내가 일생동안 간직하고있겠다고 하면서 아들의 장래를 축복하였다.

련이어 쏟아져나오는 그의 기사들은 평민들도 읽었고 상층들도 읽었다. 그것은 그의 글들에 량심의 호소가 비껴있기때문이였다. 그의 글들은 알기 쉽게 통속적으로 씌여지면서도 사건전달에 그치는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있었다.

이미 대학시절에 알려졌던 비슈와나스의 이름은 날이 갈수록 점점 독자들의 인기를 획득해갔다.

매일같이 취재하고 기사를 쓰고 또 많은 사람들과 휩쓸리면서 그는 분주한 나날을 보내였다. 또한 다른 신문들도 매일같이 보면서 그는 나라에서도 손꼽히는 자기 신문이 광고소개에서도 응당 첫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데 생각이 쏠리게 되였다. 광고가 없으면 신문이 돈을 벌지 못한다는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상업금융전문가의 눈은 역시 예리한것이였다.

그는 광고주문의 기회를 엿보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판잡국립은행 총재가 어느 한 기자회견에 나오는

계기가 있었다. 바로 이런 때를 비슈와나스는 기다렸던것이다.
사람과의 교제에서는 《우연의 기회》를 선택하는것이 보다 자연스러운것이다. 그것은 우연의 기회야말로 서로가 누가 먼저 찾아간 자리도 아니며 따라서 동등한 위치에서 호상 자존심이 손상당하지 않게 하기때문이다.
기자회견후 비슈와나스는 그 은행총재와 자연스럽게 마주서면서 자기 소개를 하였다. 그러자 은행총재는 신문을 봐서 당신이름을 이미 알고있다고 하는것이였다.
비슈와나스는 몇마디 그 은행에 대하여 례찬하였다. 그 은행은 인디아에 100개의 지부를 가지고있는 큰 은행이였다. 그 은행은 당시에도 컸고 지금도 큰 은행으로 존재하고있다.
이런저런 말을 하던 끝에 비슈와나스는 웃으며 말하였다.
《총재선생님, 판잡국립은행이 우리 신문에 광고를 주면 저는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비슈와나스는 이미 이 은행이 《트리뷴》과 관계가 좋지 않기때문에 자기 광고를 싣지 않고있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해주듯이 총재는 즉석에서 말하는것이였다.
《물론 그 신문이 큰 신문이긴 하지만 지난 시기 그 신문이 우리 은행에 대해, 또 나에 대해 좋지 않은 기사를 썼기때문에 나는 광고를 주지 않아.》
예견했던바였다. 아주 로숙하고 숙련된 총재가 금방 20대에 들어선 젊은 기자에게 닫아맸던 존엄의 문을 쉽게 열어줄리는 만무한것이였다. 하지만 절절히 말하는 젊은 기자의 목소리에는 진정이 어려있었다.
《지난 일로 하여 어른들이 계속 등을 돌려댈것은 없다고 봅니다. 총재선생님도 기업인인데 서로 화해하고 우리 신문에 광고를 실으면 모두가 좋지 않겠습니까?!》
확실히 비슈와나스의 그 말에는 신문에서 보아온 그의 기사에서처럼 나이보다는 큰 호흡이 흐르고있는것이였다. 하지만 총재는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의 가슴속에서는 자존심이 꿈틀거리고있었다.
《아니, 나는 싣지 않아.》

끝까지 존엄과 체면을 지키려는듯 이 한마디를 내뱉고 총재는 가버렸다.

그로부터 며칠후 그 은행총재가 참석하는 행사장에 비슈와나스는 우연인듯 또 나타났다. 하지만 그는 총재에게 깍듯이 인사만을 할뿐이였다. 이번에는 총재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아마도 이 순간을 비슈와나스는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다렸던지.

《비슈와나스, 네가 권고한것을 내가 심중하게 생각하고 신문사와 화해하는것이 좋겠다고 결심했소.》

순간 비슈와나스는 마음속으로 쾌재를 올리였다. 예견대로였다. 기업가의 심리는 달리 될수 없는것이였다.

《감사합니다. 총재선생님! 그럼 제가 래일 찾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이렇게 되여 비슈와나스는 다음날에 은행총재를 찾아가 만날수 있었으며 많은 광고주문을 받아안게 되였다.

피. 엘. 쏜디는 매우 기뻐하였다. 처음으로 광고주문을 받아가지고온 비슈와나스에게 그는 말하였다.

《넌 기자활동하면서 광고주문까지 받아왔구나. 네로임을 10프로 올려주겠다.》

그때부터 비슈와나스는 추가적로임을 받으며 광고수집의 길에 나섰다.

그렇다. 기자학과 광고업은 평행으로 간다.

자본사회에서 광고업은 기자활동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것은 그 사회의 신문사들에서는 글을 쓰고 편집하는 편집국 못지 않게 판매와 광고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영업국이 중시되고있기때문이다. 다시말하여 그 사회에서 광고업은 기자로서 동시에 할 일이였다.

상업금융학을 전공한 비슈와나스는 이것을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감수하고있었으며 따라서 실천에 옮기였던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그의 광고수집의 초행길은 후날 그를 세계적인 《광고왕》으로 떠받들어올리였다.

신문사가 비슈와나스에게 매혹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말보다 글을 더 잘 썼으며 생각보다 행동을 앞세우는 그의 모습은 날이 갈

수록 주위의 눈길을 끌기 시작하였다.

그의 존재는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자기의 위치를 더욱 뚜렷이 해나갔다.

언제나 실천적인 인간은 남보다 앞서나가기마련이다.

그때를 회상하여 비슈와나스는 언제인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어린 나이에 일거삼득을 했소. 공부도 했고 돈도 벌었고 현실도 알았소. 나는 이 3가지를 다하였소. 이것이 나의 광고업자로서의 첫시작이요.》

그는 물질적부를 창조해야 했다. 그 물질적부를 언제까지 부모에게 의거할수는 없는것이였다. 모든것을 자기의 손으로 얻을수 있을 때만이 이 세상을 혼자서도 끝까지 뚫고나갈수 있는것이다.

비슈와나스는 젊은 나이에 너무도 많은것을 판단했으며 또한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개척해나가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물질문명을 자랑하던 나라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것을 보며 인간의 존엄, 민족의 존엄이 어디에 있는가를 심장으로 절감하게 되기까지에는 비슈와나스의 앞길에, 인류의 앞길에 아직 많은 세월이 놓여있었다.

2. 인생초엽의 결혼

인기가 있는 총각들에게는 처녀들의 눈길이 쏠리기마련이다.

비슈와나스도 례외가 아니였다. 우람한 체구를 갖추기 시작했으며 모든것이 큼직큼직하게 생겼고 그 생김처럼 활동 또한 큼직큼직하며 그 이름 역시 널리 알려진 이 젊은 기자를 그 어떤 처녀인들 마다할수 있으랴. 그런데다가 또 부호의 가문이라 하지 않는가.

20살의 청춘남녀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미지의 세계이며 그들은 그 세계를 안고있는것으로 하여 날마다 환희에 넘쳐 설레이는것이였다.

사랑의 봄은 처녀들의 가슴속에 더 먼저 싹트는가보다.

신문사에는 비슈와나스와 함께 대학을 마치고 취직한 동창처녀가 있었다. 그는 신문사의 교정기자였다. 그는 비슈와나스가 쓰는 모든 글의 첫 독자로 되는것이였다.

그 처녀의 이름은 파라카슈!

빛, 광명이라는 뜻이였다. 그 빛, 그 광명이 비슈와나스를 비쳐주려고 열렬히 따랐다. 비슈와나스도 그 빛, 그 광명이 싫지 않았다.

우연히 복도에서 만나 눈길이 마주칠 때면 그 처녀는 알수 없는 수집음을 띠군 하였다. 비슈와나스는 그 처녀를 훨씬 이전부터 사랑하고있었던듯한 이상야릇한 기분을 느끼였다.

대학시절부터 비슈와나스의 인기에 대하여 잘 알고있는 파라카슈는 신문사에 와서 그가 련이어 뽑어내는 글들에 공감했으며 그 공감은 점차 아릿한 사랑의 불길로 타올랐다. 날이 갈수록 그 불길은 타번지며 비슈와나스의 가까이로 오고있었다. 비슈와나스도 점점 다가오는 그 불길의 뜨거움을 감촉하며 심장이 달아오르고있었다. 하지만 봄계절에 들어선 청춘남녀의 가슴속에 자신들도 모르게 움트기 시작한 그 이상야릇한 감각의 세계를 누구도 명확한 리념의 세계에로 전의시켜주지는 않았다. 그들스스로가 사랑에 대한, 인생에 대한 명확한 리념을 가지게 되고 담도 커지게 된 때는 이미 모든것이 지나가버린 다음이였다.

당시 나라의 정세는 점점 험악해지고있었다.

이슬람교도와 힌두교도간의 싸움은 격화되여 곳곳에서 서로 죽일내기를 하고있었다. 이에 불안을 느낀 일부 가족들이 밤사이에 안전한 다른 지방으로 떠나가기도 하였다. 특히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들이 다른 곳보다 많이 뒤섞여있는 라호르가 더했다.

그해 12월 비슈와나스는 크리스마스명절을 쇠려 집으로 갔다. 그는 월에 한번씩은 고향마을에 가 부모를 만나뵙군 하였다.

집에 온 비슈와나스에게 아버지가 자기의 친구인 키션을 소개하였다. 키션은 처와 딸을 데리고 이미 와있었던것이다. 바드리 나트 취바와 키션은 다같이 빠띠알라주에 있는 란디즈단과대학 졸업생들이였다. 바드리 나트 취바는 의학을 전공하였고 키션은 경제학을 전공하였었다.

비슈와나스는 아무 생각없이 그의 가족과 명절을 즐기였다. 언제나 말없이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있는 키션의 딸은 순박해보이였다.

그 처녀의 나이는 18살, 이름은 싼또쉬 꾸마리!

싼또쉬라는 말에는 만족이라는 뜻이 있었고 꾸마리라는 말에는 어린 처녀 혹은 딸이라는 뜻이 있었다. 그렇다면 싼또쉬 꾸마리는 만족을 주는 처녀란 말인가.

그런데 그 처녀는 안경을 끼고있었다.

한주일이 지나 키션의 가족이 떠나게 되였다. 비슈와나스는 뻐스정류소에까지 나가 그들을 전송하였다. 그들을 전송하면서도 비슈와나스는 그들이 왜 자기 집에 와 성탄절을 쇠고가는지 그런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아버지의 친구의 가족이라고만 생각하며 모든 례의를 다하였을뿐이였다. 만약에 그가 그때 그들이 자기의 처, 자기의 장인, 장모가 될 사람들이라는것을 알았더라면 펄쩍 뛰였을것이다.

그들이 떠나간 다음에 두르가데비는 아들에게 모든것을 말해주었다.

바드리 나트 취바 역시 확정적으로 말하였다.

《네가 이제는 로임을 타기때문에 결혼시켜야겠다. 싼또쉬 꾸마리가 괜찮은것 같은데 인차 해야겠다.》

비슈와나스는 아뜩하였다. 자기는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앞길이 구만리같은 사람이 왜 빨리 결혼을 해야 한단 말인가. 결혼은 과일과 달리 계절을 따르는것도 아닌데…

왜서인지 그 순간 비슈와나스의 눈에는 아릿다운 파라카슈의 얼굴이 보여왔다. 물론 그와는 우정을 떠난 그 어떤 다른 말이 오간것은 없었지만.

오늘날 결혼은 남녀의 완전한 평등과 호상존중 그리고 남녀가 서로 리해하고 부부로 될데 대한 자원적이며 진정한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것으로 되고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부모가 선정하는 대상자를 얼굴도 보지 못하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봉건의 법도가 그대로 존속되고있었다. 비슈와나스에게 결혼전에 처가 될 처녀를 보게 한것만 하여

도 그의 집안은 훨씬 개명하였다고 해야 할것이였다.

하다면 세기가 바뀐 오늘날에는 그 땅에 봉건의 결혼법도가 다 없어졌는가?!

물론 없어졌다. 하지만 광활하고 인구수도 많은 그 땅에는 오늘도 여전히 봉건의 관습이 크나작으나 이어져오고있다. 지금도 전인디아적으로 15프로정도가 녀자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부모의 선정에 의하여 결혼하는 법도가 지속되고있는데 농촌에는 지어 50프로이상이라고 한다. 하물며 그때에 부모의 의사를 거역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였다.

라호르에 직업을 가지고있는 비슈와나스가 빠띠알라주에서 개인은행업을 하고있는 키션이 사돈을 맺자고 바드리 나트 취바를 사흘이 멀다하게 찾아오고있는것을 어이 알수 있었으랴.

인기가 있는 총각들에게는 처녀들뿐아니라 딸가진 부모들의 눈길도 많이 쏠리기마련인것이다.

이렇게 판도리비비마을에서 비슈와나스의 혼사문제는 이미 물망에 오르고있었으며 남달리 가까왔던 친구들사이에 자식들의 혼사문제는 벌써 결정되여있었던것이다.

그러나 비슈와나스는 이 모든것을 알리 없었던 스무살의 젊은이였다.

아, 너무도 뜻밖에 맞다든 이 엄연한 현실앞에서 어떻게 할것인가.

비슈와나스는 부모의 의사를 선뜻 받아들일수도 없고 내놓고 거역할수도 없었다. 무슨 리유든지 있어야만 했다.

《나는 아직 어려서 장가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안경낀 녀자는… 싫습니다.》

비슈와나스는 곧 라호르로 돌아왔다.

다른 생각말고 취재와 집필에 전념하자고 그는 생각했다. 하면서도 그는 왜서인지 파라카슈가 무척 보고싶어졌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그 처녀의 얼굴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출근길에도 모임장소에도 그리고 우연인듯이 만나던 복도길에도…

알고보니 그의 집은 그사이 어디론가 떠나가버렸다는것이다. 힌두교도인 그의 부모들은 이슬람교도가 많은 이 도시에 불안을 느끼고 힌두교도들이 집중되여있는 인디아중부에로 깊숙이 들어갔던것이다. 어느 주에로 갔는지는 알수 없었다. 부모는 자식을 데리고가기마련이다.

아, 광명의 그 빛이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틀림없으리라. 광명의 그 빛은 그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어쩔수 없는 숙명의 바람에 떠밀리워 어디론가 가물거리며 숨어들었으리라.

하지만 그 빛은 찾을 길이 없었다.

아, 아, 이 땅을 휩쓰는 종교싸움의 바람은 이렇게도 모질게 청춘들을, 운명들을 갈라놓는단 말인가.

그렇다면 종교는 불화의 씨앗이 아닌가? 서로 가까운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갈라놓게 하는 종교는!

새해에 잡히여 월말에 집에 간 비슈와나스에게 바드리 나트 취바는 안경을 벗은 싼또쉬 꾸마리의 사진을 내놓는것이였다.

뻔한 일이였다.

그가 처녀의 부모에게 비슈와나스의 말을 알리여 그런 사진이 오게 되였을것이였다. 그런 부모들앞에 좋다싫다라는 의사를 어떻게 표시할수 있으랴.

비슈와나스는 침묵을 지키고 집을 떠나왔다. 침묵이 때로는 찬성의 표시로도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의 표시로도 되는것이다.

비슈와나스에게는 날이 갈수록 세상이 어수선하게만 느껴졌다.

교리싸움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해졌고 소문없이 떠나가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알리였다. 사람들은 공포와 불안에 싸여있었다.

그럴즈음 전보가 왔다. 그 전보는 아버지가 비슈와나스에게 보내온 전보였다.

《어머니 병위급. 급래》

호출하는 전보였다.

비슈와나스는 지금도 그 전보를 건사하고있다고 한다.

때는 1947년 4월 23일.

인디아에서는 제일 더운 계절이였다.

전보를 받고 급히 고향마을에 내려온 비슈와나스는 의외에도 자기 집에서 울리는 북소리와 노래소리를 들을수 있었다. 얼떠름해서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비슈와나스를 그의 동생이 먼저 알아보고 반겨맞으며 말했다.

《형님은 래일 결혼하게 된다.》

《아니, 어머니 병은?》

비슈와나스는 다시한번 아뜩해졌다. 당장 뒤돌아서 어디론가 뛰고싶었다. 하지만 그는 자기를 겹겹이 에워싸는 샤르마가문의 손길에 끌리여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을수 없었다. 모두가 그를 반겨맞았지만 비슈와나스는 앞길이 캄캄해지는것이였다. 참으로 반갑지 않은 날이 그를 휩싸안았다.

그는 울면서 말을 했다.

《나는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그를 설복하였다. 그래선 안된다, 다 정해놓았다, 꼭 해야 한다, 안하면 실례다 하면서 할아버지계렬의 선친들이 엄하게 타일렀다.

사랑의 문이 열리기도 전에 결혼이 먼저 찾아온 이 생활,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단 말인가.

그 누구와의 깊은 사랑이라도 있었더라면 세습적인 이 결혼법도에 항거해나섰을수도 있었으련만 금방 20대를 맞이한 그의 가슴에 비쳐오는 사랑의 빛은 있었어도 그 빛은 아직 그의 맘속에 깊이 스며들지는 않고있었던것이다.

비슈와나스는 몸부림쳤다.

아, 샤르마가문이여! 대대로 물려오는 너의 가부장적인 세습이 이렇게도 나의 발목을 붙잡는단 말인가.

결혼이여! 너의 조건은 무엇인가?

그 조건이 사랑이라면 나는 아직 사랑을 해보지도 못하지 않았는가.

사랑은 부모의 강요도, 그 누구의 충고도 아니렷다.

그렇다면 사랑의 조건은 무엇인가?

아직은 알수 없었다. 그것이 얼굴인지 지참품인지 심장인지…

사랑도 결혼도 자유의 바람에 떠실려 이미 세상에 배회하고있었건만 그 바람이 그 땅에까지 불어오기에는 세월이 아직 모자랐던가, 아니면 그의 나이가 너무 어리였던가.

오 생활이여, 너는 합법칙적인 자기 단계를 거쳐 발전하는 그 사회에 맞서며 번져지는것인가.

비슈와나스는 후날 아버지가 되여서는 자식들에게 모두 결혼의 자유를 주었지만 그자신의 젊은 시절은 구시대에 머물고있었다. 결혼의 선택권이 당사자들보다는 그들의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쥐여져있던 시대였다.

온밤 잠못들고 그는 자기의 방에서 격한 심정을 시줄에 태우며 밤을 밝혔다.

나의 총각시절이여
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가
구애됨이 없는 《제왕》의 시절이여
하지만 너도 이제 하루
다음은 영영 끝장나려니
아, 좋은 시절이여
가지 말라 가지 말라 가지 말라
…

가능하다면 영원히
《제왕》의 이 시절에서 살리
붙잡을수만 있다면 영원히
총각시절이여 너는 나의것
…

말해보자 심장이여
자유라고 내 어찌 마음대로
총각시절과 작별할수 있으랴

이 세상을 알기도 전에

이밤
유일한 나의 위안의 말은 한마디
— 총각시절이 간다고
   청춘시절도 가랴
…

총각시절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비슈와나스에게 운명적인 새날이 밝아오기 시작하였다. 이제 7일간을 어떻게 참고 견딜수 있단 말인가.

인디아풍습에는 결혼식이 7일간으로 되여있다.

결혼식 1일은 개막행사의 날이다. 개막행사는 주로 식당에서 하는데 이날에 가족, 친척들이 모두 모여 서로 상봉하는것이다.

결혼식 2일은 종교사원에서 종교의식을 하는 날이다. 이 의식은 녀자의 행복을 축원하는 의식으로서 하루종일 하는것으로 되여있다. 종교사원에서 12명의 수도승이 나와 불교경전을 읽는데 한쪽에서는 향나무에 불을 붙이고 계속 기름을 친다. 그것은 악을 멀리 쫓으며 행복을 불러오는 의식이다. 이날에만은 알콜, 고기류를 절대 금지하며 남새만 먹게 되여있다.

결혼식 3일은 총각이 처녀의 집에 약혼식을 하러 가는 날이다. 이날에 서로가 가락지를 교환하며 보석, 옷과 같은 기념품을 주고받는다. 녀자측에서는 남자측의 모든 가족, 친척들에게 기념품이 아니면 기념품형식으로서 돈을 주게 되여있지만 남자측에서는 오직 신부에게만 준다. 주고받는 물건이나 돈의 크기는 량측의 재정적능력에 달려있는것이다. 물론 이날에도 먹고 마신다.

결혼식 4일은 신부와 처녀들 그리고 결혼식에 참가한 모든 녀자들의 손과 다리에 각이한 색갈의 물감으로 무늬를 그려주는 날이다. 이것도 하나의 큰 행사이다. 물감은 헤나라는 나무의 잎사귀를 짓이겨 만든것인데 한번 칠하면 그 무늬는 한달동안 지워지지 않는다. 돈이 있는 집에서는 그것을 칠해주는 전문가들을 뭄바이와 남부에서 초청하여오는데 그 지불은 약차한것이였다.

결혼식 5일은 신부측에서 신랑측의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여 연회를 차리고 서로서로 깊이있게 통성하는 날이다.

결혼식 6일은 진짜날이라고도 할수 있다. 그것은 이날의 행사끝에 신부가 곧장 신랑의 집으로 가기때문이다. 이날에는 량측의 부모들과 친척들이 다 모여 춤추며 노래하며 즐기는데 저녁 7시에 시작하여 다음날 아침 6시까지 계속된다.

결혼식 7일은 신랑측에서 신부를 맞이하는 환영의식을 하는 날이다. 이날에는 신랑측에서 신부의 가족, 친척들을 다 초청한다. 신랑의 집에서 량측이 모여 연회를 하는것으로 한주일의 결혼식막은 드디여 내리워진다.

이것이 오늘도 계속되는 인디아의 결혼풍습이다. 세계적으로 결혼식을 7일간 하는 나라는 인디아와 파키스탄이다.

빈부의 차가 심한 인디아에서 돈많은 사람들의 결혼식은 요란하지만 돈없는 사람들의 결혼식은 가족범위에서 아주 소박하게 진행된다.

현시기 인디아의 부유층에서는 다이야몬드가락지도 20 000～50 000딸라짜리를 교환하지만 가난한 계층에서는 10～20딸라짜리를 교환하며 물감도 자체로 조금 사다가 저희끼리 칠한다. 그래도 이 결혼풍습만은 그 어느 집에서도 허물수 없는것으로 이어지고있다. 공식적인 날자가 7일이지만 그이후에도 친구들, 친척들이 끼리끼리 모여 소연회는 계속된다. 결국 한주일동안에 많은 돈을 다 써버리고마는것이다.

비슈와나스는 자기 민족의 이 결혼풍습만은 애초에 달가와하지 않았지만 그 역시 세기가 바뀐 오늘까지 이 풍습만은 어쩌지 못하고있는것이다. 줄줄이 태여난 그의 후손들의 결혼식도 이 풍습에서 례외가 되지 않고있는것이였다.

그가 그 풍습대로 거행되는 후손들의 결혼식에 어쩔수없이 참가하고있는것을 보면 풍습이란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 않는 집요한것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비슈와나스의 결혼식은 그 모든 공정을 뛰여넘어, 아니 그 풍습을 뛰여넘어 단 하루에 한다는것이였다.

첫새벽에 비슈와나스의 방에 들어선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미 량

측에서 토론된 일정을 알려주는것이였다.

어랍쇼,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비슈와나스는 두눈을 크게 떴다. 그는 마치도 죽음에서 살아난듯한 기분이였다.

이 소식은 그에게 있어서 결혼식이 취소나 된것만큼 기쁜 소식이였다. 이제나저제나 빠질 구멍만을 찾던 그에게 있어서 하루는 정말 다행인것이라 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렇게 되지 않았던들 그는 그 어느 틈에 달아나버렸을수도 있었으리라.

당시 나라의 정세는 점점 최악의 상태로 번져지고있을 때였다. 가는 곳마다에서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가 서로 죽일내기를 하며 싸우고있었다.

1940년 8월에 일어난 두 교도간의 류혈적인 충돌사건은 1947년에 들어서면서 더욱 격화되여 무려 500만여명의 사상자를 내는데까지 이르렀던것이다. 그 싸움은 피의 란투극이였다.

그리하여 국가적인 통행금지시간이 선포되였다. 그 시간은 매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였다. 이것은 7일간을 내처 진행해야 하는 결혼식에 장애가 되지 않을수 없었다.

할아버지계렬의 선친들이 그래도 풍습을 어길수는 없다고 주장하는것을 많은 사람들이 토론끝에 하루에 모든것을 단축하여 진행하기로 겨우 락착을 보았다는것이였다.

다행이였다. 하루라니 이날만은 모든것을 운명에 맡겨야 했다. 하지만 이 하루도 참아내겠는지 그것은 두고보아야 할 일이다.

정말 아침에 뻐스가 나타났다.

빠띠알라주에서 오는 신부측의 일행을 맞는 환영의식은 요란하였다.

북소리, 피리소리, 노래소리…

비슈와나스의 등을 친척들이 막무가내로 떠밀었다. 그리하여 그는 좋든싫든 뻐스에서 내리는 신부를 신랑으로서 마중하게 되였다. 보매 신부는 안경을 끼지 않았다. 두 사돈댁들도 상봉하였다.

이 환영의식이 있은 후 모두가 다시 뻐스에 올랐다. 줄여서 100명이 넘는 인원이였다.

일행은 뻐스를 타고 결혼식을 위해 루디아나로 갔다.

루디아나는 판잡주의 큰 도시로서 거기까지는 뻐스로 1시간이였다. 결혼식을 바로 그 도시에 있는 호텔에서 하게 되여있었던것이다.

비슈와나스의 결혼식은 성대히 거행되였다. 단축된 결혼식이였으나 샤르마가문의 그 위풍은 당당한것이였다. 비슈와나스는 싼또쉬 꾸마리와 나란히 서서 만사람의 축복을 받았지만 신부와는 아무런 할 말이 없었다. 때이르게 《강요》당하는 축복이 그에게 환희를 안겨줄리는 만무한것이였다.

처녀는 시집을 잘못갈가봐 걱정한다지만 총각은 길을 잘못갈가봐 걱정하는것이다.

통행금지시간전에 일행은 집에 도착하였다. 기다리던 가문의 많은 식솔들이 또다시 그들과 한데 어울려 대문에 빗장을 지르고 구애됨이 없는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였다.

비슈와나스는 이제나저제나 기회만을 엿보고있었다.

드디여 집을 《탈출》할 때가 왔다. 모두가 거나하여 시선이 산만해지기 시작했던것이다.

비슈와나스는 새색시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슬금슬금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선택의 권리를 잃었던 그가 이 시각 《탈출》의 권리만은 행사하려는것이였다.

주위의 눈길을 끌지 않으며 대문까지 나온 그는 문지기에게 편지봉투를 주며 이것을 밤 10시이후에 자기의 부모에게 전달하라고 단단히 오금을 박고 줄행랑을 놓았다. 그가 종적없이 사라진것은 얼마 안있어 사람들에게 곧 알려졌으나 이미 통행금지시간이여서 누구도 문밖을 나설수가 없었다.

밤 10시에 편지를 전달한 문지기는 되게 욕사발을 먹었으나 그렇다고 도련님의 분부를 거역할수도 없는 일이였다. 편지내용은 나는 라호르로 갑니다, 잘 있으시오 하는것이 전부였다.

신랑없이 결혼식밤이 지나갔다.

바드리 나트 취바와 두르가데비는 사돈들앞에 게면쩍기는 하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들의 마음이 리해되기도 하였다.

다음날 아침.

통행금지시간이 해제되자마자 비슈와나스의 부모들은 싼또쉬 꾸마리를 데리고 라호르에 나타났다. 그들은 비슈와나스에게 큰소리가 아니라 될수록 조용조용히 모든것을 리해시키려고 하였다. 오히려 큰소리로 말한것은 비슈와나스였다.

《내가 어디에 녀자를 건사하라는겁니까? 기숙사, 이 작은 방에?》

이때 처녀는, 아니 새색시는 한옆에서 어쩔줄을 몰라하며 안절부절하였다. 비슈와나스는 이때에야 처음으로 그의 존재를 느낀듯 자기에게 온 녀자를 유심히 보게 되였다.

연지곤지 찍은채 나타난 이 처녀는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고 자기 운명의 판결을 기다리고있는듯 했다. 왜서인지 그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한마디 아무 항변도 없이 처신만을 기다리는 순박한 처녀…

정말로 이름그대로 이 처녀가 만족을 주는 처녀란 말인가.

비슈와나스는 싼또쉬 꾸마리를 새삼스럽게 보았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그 누구의 호감을 살수 있는 랑만적인 말이 나올리 없었다.

그때를 회상하여 오늘날 80고령의 비슈와나스는 나에게 말하였다.

《그때 처가 내앞에서 행동을 아주 잘했기때문에 나는 생각을 달리하고 오늘까지 잘살고있소. 지금 돌이켜보면 나의 부모가 진실한 녀성을 선택해주었기때문에 내가 가정을 그에게 맡기고 오늘까지의 모든것을 이룩할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오.》

그렇다. 신식의 련애결혼도 리상적이지만 때로는 부모가 선택한 배우자와의 결합이 그 리상에 못지 않는 성공의 인생을 수놓을수도 있는것이다.

그날 비슈와나스는 부모와 진지하게 합의하였다.

나라의 형세가 교파, 종파의 싸움으로 점점 험악하게 번져지고있으므로 당분간 싼또쉬 꾸마리를 부모들에게 맡겨두고 정세를 봐 집을 마련하자는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비슈와나스의 인륜대사는 1947년 4월 24일 하루에 불이 번쩍나게 이루어지고말았다.

그때 그의 나이는 만 스물하나에로 향하고있었다.

3. 나라의 분렬

오랜 력사와 문화를 가진 인디아도 기원전부터 부단한 싸움과 분렬로 각지에 소왕국들이 형성되고 왕조들이 여러차례 교체되면서 자기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령토가 광활하고 지하자원의 종수, 매장량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인디아는 여러 나라들이 눈독을 들일만한 좋은 《먹이》였다.

이슬람교도인디아시대는 11세기에 이슬람교도들이 인디아에 침입하여 여러 왕국들을 정복함으로써 시작되였다.

이슬람교도의 통치시기에는 델리(노예)왕조, 하르지왕조, 투그라크왕조 등 여러 왕조가 수립되였으며 이 시기 몽골족인 티무르의 침입을 받았다. 1526년이후 모골(인디아사람들이 몽골이라는 말을 잘못 발음해서 굳어진 말.)제국의 통치를 받았으나 모골제국은 16세기말～17세기초를 절정으로 하여 점차 쇠퇴하였다. 한편으로는 15세기말에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이 인디아에 발을 들여놓았으며 16세기말～17세기초에는 네데를란드, 영국,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이 또한 인디아에 대한 침입을 시작하였다.

당시 영국, 프랑스, 네데를란드식민주의자들은 각각 《동인디아회사》를 설치하고 저마다 인디아에 대한 침략을 강화하였다.

영국식민주의자들은 모든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1757년에 인디아에 대한 독점적인 지배권을 확립하였으며 1858년에는 전인디아를 식민지로 만들었다. 그때 그들은 이슬람교도들이 집중되여있는 오늘의 파키스탄지역을 《직할식민지》로 떼여놓고 통치하였다. 그들은 인디아인민의 반영봉기를 계기로 식민지통치를 더욱 강화할 목적밑에 전인디아를 영국녀왕의 직접적인 관할하에 넣음으로써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총독정치를 실시하였다.

인민들의 투쟁기세가 점차 높아지기 시작하자 영국식민주의자들은 1940년 1월에 인디아의 이른바 《자치》를 인정하였다.

그다음 그들은 광활한 령토와 지하자원을 가진 이 나라를 분할통치하기 위하여 정치세력간, 종교간 모순에 끼여들어 불화의 불씨를 던지군 하였다. 이로부터 인디아에서는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간, 호상대립된 정당들간의 충돌이 오래동안 지속되였으며 이 과정에 국내에서는 매우 복잡한 사태가 조성되였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1940년 3월 인디아이슬람교도련맹은 이슬람교도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을 인디아로부터 분리할것을 요구하였다. 종교적알륵을 리용하여 인디아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분렬시키려던 영국식민주의자들이 이슬람교도련맹의 이 요구를 부채질함으로써 두 교파간의 반목은 가일층 첨예화되였으며 류혈적인 싸움은 1947년에 이르러 최대로 격화되였다.

교파들간의 치렬한 싸움이 일어번지는 인디아의 여러 도시들에서는 탄환이 획획 소리를 치며 날아갔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단말마의 웨침소리가 그칠새없었다.

각 신문들은 나라의 이러한 정세를 보도하고있었다.

이슬람교도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모하메드 알리 지나는 《두 민족리론》을 강하게 들고나왔다. 다시말하여 그는 무슬림(이슬람교도)만을 하나의 나라로 하고 힌두교도(인디아교도)는 그들대로 다른 하나의 나라로 하자는것을 주장하였다.

인디아는 《두 민족리론》을 극구 반대하였다. 다민족, 다종교국가인 인디아에는 두개의 교리가 있을수 있기때문에 갈라지면 안된다는것이 나라의 주장이였다.

무슬림과 힌두교도간의 종교적반목을 조장시켜오던 영제국주의자들은 두 교파들간의 충돌이 절정에 달한 1947년 7월 이슬람교도가 많은 지역과 힌두교도가 많은 지역을 분리하여 각각 《독립》시키는 《인디아독립법》을 조작하였다. 이리하여 교활한 영제국주의자들은 이해 8월 15일에는 순전한 종교적표징에 따라 인디아를 두개의 《자치령》으로 갈라 독립을 선포케 하였던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여 영국이 300여년전부터 발을 들여놓았던 땅에 독립을 선포케 하였는가. 세계최대의 식민지제국으로 그 위세를 떨치던 영국이.

1914년에 영국의 식민지면적은 3 350만평방키로메터, 식민지 인구는 무려 4억명에 달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후 영국은 전쟁에서 승리는 하였으나 받은 피해로 하여 국력이 쇠퇴해지기 시작하였다. 1920년대부터 인디아를 비롯한 식민지들에서 반영독립운동이 강력히 전개되였다.

19세기 전반기에 형성된 대영제국은 1931년에 해체되고 《영국국왕에 대한 공통의 충성에 의해 결합된, 각각의 주권을 가진 동등한 독립국가들의 련합체》로서 영련방이 생겨났으나 실제로 독립을 쟁취한것은 카나다, 오스트랄리아를 비롯한 영국계백인이 우세한 자치령뿐이였다.

영국은 력사적으로 유럽대륙에서 영국을 릉가하는 강국이 출현하지 못하게 하는 국가정책에 기초하여 교묘한 외교와 적절한 군사적개입을 통해 《세계의 경찰관》으로 행세하여왔다. 대표적인 실례로 나뽈레옹전쟁에서 프랑스를, 크림전쟁에서 로씨야를,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도이췰란드를 패배시키고 유럽정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것을 들수 있다.

그러나 1930년대에 상대적으로 국력이 강화된 파쑈도이췰란드의 침략정책에 타협(뮨헨협정)하지 않을수 없게 된것은 영국이 더는 세계최대의 강국으로서의 지위와 실력을 유지할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제2차 세계대전초에 영국은 파쑈도이췰란드와의 전쟁에서 파멸적인 타격(덩께르크전투에서 패배)을 받아 많은 인명손실과 륙군무장장비의 대부분을 잃었다.

1944년에 영국군은 미군과 함께 프랑스의 노르망디에 상륙하여 파쑈도이췰란드군에 대한 결정적인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전후 영국은 전쟁때에 당한 막대한 손실, 강국으로 등장한 쏘련과 미국의 지위 강화, 식민지지배제도의 붕괴 등의 요인으로 국제적지위가 현저히 낮아졌으며 정치경제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추종하는 길로 나갔다.

영련방은 영국국왕에 대한 충성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 동등한 국가들의 련합체로 변하였으며 영련방의 기능과 지위는 더욱더 상징적인것에 불과한것으로 되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영국의 경제

발전속도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아져 영국의 국력쇠퇴는 계속되였다.

유럽의 제국이라고 일컫던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직후 국제적압력에 못이겨 불법적인 자기의 소유지들을 점차적으로 내놓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이르게 되였던것이다.

또한 로동당이 영국의 집권당으로 되면서 사태는 급속도로 진전되여 정권이양문제가 구체적으로 론의되기 시작하였고 모든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여갔다. 이에 따라 이슬람교도들의 문제가 한층 더 심각하게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마하트마 간디는 한 국민이 두개의 집단으로 갈라지는것을 원치 않았으나 3억의 힌두교도와 1억의 이슬람교도들사이에는 도살전이 전개되여 그 싸움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번져갔다. 이 처참한 상태에 부닥친 간디는 그 험한 싸움터를 직접 찾아 동분서주하면서 종교는 다를망정 《하느님》은 같은 《하느님》이며 《하느님》은 자손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는것을 원치 않으니 제발 평화롭게 단결하여 살자고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들에게 안타까이 호소하였다.

수십년간의 피눈물나는 투쟁으로 독립을 맞게 된 때에 나라가 둘로 갈라진다는것은 간디에게 있어서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가슴아픈 일이였다.

하지만 인디아는 둘로 갈라지고야말았다.

인디아가 독립을 맞이한 그날은 환희의 날이였으나 또한 나라의 분렬을 가져오는 비극의 날이기도 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은 나라를 분렬시키면서 앞으로 저들의 식민주의적목적을 계속 추구하기 위하여 카슈미르(인디아와 파키스탄이 접하고있는 21만 8 000평방키로메터에 달하는 지역)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당시 카슈미르는 인디아나 파키스탄의 어느 한 나라에 자유로이 속할 권리가 부여되여있었다. 하지만 영제국주의자들은 이 지역을 어느쪽에도 귀속시키지 않고 분쟁거리로 남겨두었다.

독립후 두 나라는 수차의 회담을 벌려오다가 카슈미르의 동부 및 남동부는 인디아의 통치구역으로, 서부 및 북서부는 파키스탄의 통치구역으로 각각 분할하였으나 국경확정문제와 종교적대립으로 분쟁은 세기가 뒤바뀐 오늘까지도 빈번히 일어나고있다. 이 하

나의 실례를 통해서도 인류는 전쟁과 분쟁의 화근은 제국주의라는 것을 똑똑히 알수 있는것이다.

인디아는 이렇게 되여 둘로 갈라졌다. 즉 힌두교도들이 집중되여있는 본래의 인디아지역을 한 나라로 그리고 이슬람교도들이 대부분인 지역을 또하나의 다른 나라로.

《이슬람》이란 말은 아랍어로 《순종》, 《복종》을 의미하는바 종교적으로는 《신을 따른다.》는 뜻으로서 회교를 이슬람교라고 부르고있는것이다. 원래 이슬람교는 7세기에 아랍사람인 무함마드(571년경－632년)에 의해 만들어진 교로서 그 발생지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메카로 알려져있다.

이 세상에 새롭게 등장하는 또하나의 이슬람교국가의 이름은 파키(순수하다)스탄(나라)이였다. 초대총독으로 된 모하메드 알리 지나가 나라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다시말하여 순수한 나라라는것이다. 하나의 교도들만으로 국가를 세우면 나라가 정말로 순수해지려는지…

하긴 인디아의 본래국호도 힌두스탄이라고 한다. 다시말하여 힌두교의 나라라는 뜻이다. 옛날에는 이 지역에 이슬람교도도 시크족도 없었으니 충분히 그렇게 불리울만도 한것이였다. 그러던것이 지금으로부터 250여년전에 영국이 이 힌두교의 나라에 독점적인 지배권을 확립하면서 인디아라고 불렀다고 한다. 오늘도 이 나라에 우르두어를 하는 사람들이 저희들끼리 말할 때는 힌두스탄이라고 하고 영어로 말할 때는 인디아라고 하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것이다.

인디아는 힌두교를, 파키스탄은 이슬람교를 국교로 선포하자 즉시 종교적리념에 따른 사람들의 대이동이 시작되였다.

그때 파키스탄은 인디아의 동부의 한쪽과 서부의 한쪽을 차지하였다. 그러하였던것이 1971년 3월에 동부파키스탄이 떨어져나와 방글라데슈국가를 창건함으로써 오늘의 파키스탄은 그때의 서부지역만이 속하는것이다.

당시 제일 복잡하게 교들이 자기 파를 따라 분주히 이동하기 시작한 곳은 판쟙주였다. 그것은 판쟙주가 인디아와 파키스탄지역을 다같이 차지하고있었기때문이였다.

바로 이 일대에서 말할수없이 처참한 대학살사건이 벌어졌다. 그와 동시에 인디아의 수도 뉴델리에서도 증오와 공포의 분위기가 맴돌게 되였다.

간디는 사태의 엄중성을 직감하고 뉴델리와 판잡주를 래왕하면서 사태수습에 전력하였다.

그는 여러해를 두고 국민들에게 가르친 비폭력주의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는것을 절감하였지만 계속 자기의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간디는 파키스탄에서는 힌두교도를 학살하더라도 인디아에서는 힌두교도와 똑같이 이슬람교도들을 포섭하여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였다.

국경을 갈라야 했다. 결국 판잡주는 둘로 갈라지게 되였다. 한쪽은 인디아쪽으로, 한쪽은 파키스탄쪽으로.

라호르는?

많은 무슬림들이 살고있으며 제일 큰 이슬람교사원이 있는 이 번화한 도시를 파키스탄쪽으로 하여 국경이 그어지게 되였다. 이 도시는 변함없이 판잡주의 소재지인데 파키스탄쪽의 판잡주소재지로 된것이다.

라호르는 복새판을 이루었다. 이 도시에 살던 힌두교도들은 부산을 피우며 인디아쪽으로 이주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주정부를 비롯한 주의 통치기관들에서 일하던 힌두교도들은 인디아쪽의 판잡주소재지로 된 찬디가르로 갔다. 모든것이 뒤죽박죽이였다.

《트리뷴》은?

역시 마찬가지였다. 나라에서도 큰 신문이였던 이 출판기지의 기대들은 졸지에 멎고 활자들은 그냥 놀았다. 기자도 직원도 모두가 교파에 따라 이주하는데 누가 그 공간을 메꿀수 있으랴. 거의 모든 주들에 지사를 두고있는 이 본사가 순식간에 붕괴나 다름없는 처지에 이른것이였다.

비슈와나스는?

더 말해 무엇하랴. 명성이고 뭐고 순간에 다 없어지고말았다. 사람들은 이 신문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았다. 국적이 달라지는 판에 그 무엇에 대해, 그 누구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있으랴. 모

두가 결눈팔새없이 가장집물을 걷어안고 저 갈데로 부지런히 뛰고 붐비고있었다.

아, 개인의 운명은 나라의 운명에 따른것이였는가.

비슈와나스도 라호르에서 탈퇴하여야 했다. 그는 라호르를 사랑했다. 청춘시절의 희망을 키운 곳, 사회에로의 첫 발을 내디딘 곳…

그는 오늘도 이 파키스탄을 어머니조국이라고 부르고있다.

그는 언어도 우르두어를 더 잘 알았다. 우르두어와 힌두어는 서로 말은 비슷했지만 글자는 아주 달랐다. 일반적으로 우르두어를 하는 사람들은 힌두어로 말은 했지만 글은 우르두어만큼 잘 알지 못하고있었다.

비슈와나스는 소중한 추억이 깃든 그곳의 모든것과 작별해야 했다.

이런것이 어쩔수 없는 숙명이란것인가.

이 세상에 과연 이 숙명을 박찰 힘은 없단 말인가.

받아들여야 했다. 받아들이면서도 가슴은 아팠다. 하지만 방도는 없었다. 운명은 그렇게 주어진것이였다.

그는 정다운 피. 엘. 쏜디와도 작별해야 했다.

총경영자는 매우 섭섭해하였지만 그도 어쩔수 없었다. 그 역시 자기의 앞길과 《트리뷴》의 운명을 당장은 가늠할수 없는 처지인것이다.

이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하느님》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희롱하는것이였다.

조국을 사랑하는 젊은 비슈와나스의 가슴은 쓰렸다.

분렬된 나라는 어수선하였다.

역마다는 아비규환이였다. 빈민렬차는 남녀로소들과 트렁크, 상자, 보따리로 꽉 들어찼다. 죽음에 직면한 공포와 살고저 하는 열망이 이 불행한 사람들을 이리로 몰아쳤던것이다.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자유》가 수많은 사람들을 제 집에서 내쫓았던것이다.

비슈와나스는 이 모든것을 보았다.

인디아의 절대다수 인민이 성실한 땀을 흘리지만 그들이 바라는 살기 좋은 사회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나라가 분렬되는 가

습아픈 광경을 그는 똑똑히 보았다.

자비하신 《하느님》은 왜 사람들을 들볶우며 이렇게 고통속에 몰아넣는지?

세상을 흉악하게 만들고 흉악한 질서속에 놓아두는 《하느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것이 못되였다. 사실 저 하늘에 계신다는 《하느님》에게는 땅우의 사람들이 찬양하든말든 그다지 문제로 되지 않을것이였다.

이 세상에 과연 사람들을 안정의 길로 인도하는 성자와 천사는 없단 말인가.

서로 다른 교파로 또는 그 무슨 제나름의 주의주장으로 갈라지는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정신적힘으로 묶어세울 그러한 사상이 과연 이 세상에 없단 말인가.

7억(당시)의 인구를 가진 인디아를 추켜세울 정신적인 힘은 어디에 있는가?

어느 리념을 따라야 인디아를 번영의 길로 이끌어갈수 있는가?

아무리 생각을 굴려보아도 만민이 공명할 사상은 없었다. 이 세상 제나름의 각이한 사람들을 하나로 이끌어갈수 있는 보편적인 사상, 인디아의 복리를 위한 실천적인 방도를 밝혀주는 그런 사상은 알수 없었다.

그가 우러를만 하다고 생각하는 성인들은 다 《천상의 아들》로서 허구에 불과하였다. 《인간생활의 안내서》로 간주하였던 《성서》들은 현실세계를 외면하고 《래세》의 《락원》만을 《약속》해주고있었다.

비슈와나스는 파키스탄으로 밀려가는 무슬림들과 인디아로 밀려오는 힌두교도들의 대집단을 보면서 저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리념아래 안정을 누리게 한다는것은 하늘의 조화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인디아의 문학작품들에는 서로 다른 신앙으로 하여 인디아로부터 부득불 《제2의》 조국인 파키스탄으로 이주해가지 않으면 안되는 비극적운명의 형상들이 반영되여있다.

독립은 이룩되였으나 둘로 분렬되는 나라의 정치정세가 얼마

나 복잡성을 띠였는가 하는것은 당시의 비참한 현실을 반영한 인디아의 그 작품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사람들은 《운명의 구세주》, 사상과 인덕으로 천하를 다스릴 위인을 갈망했지만 그러한 위인이 현실세계에 존재하지 않는것이야말로 인간세상의 가장 큰 비극이였다.

그 비극을 안고 비슈와나스는 인디아의 참된 아들이 되고저 민족이 나아갈 출로를 찾아 모색에 모색을 거듭하였다.

하지만 방도는 없었다. 다만 진리에 대한 갈구로 타끓는 젊은 혈기를 어디에 바칠데 없어 몸부림쳤을뿐.

그는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고향마을에 돌아왔다.

부모가 있고 처가 있는 고향집은 세월이 어떻게 흘러가든 언제나 자식을, 남편을 기다려 맞이하는 살뜰한 품이였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어머니의 품이라고 했던가.

하지만 라호르를 잃고 직업을 잃고 동료들을 잃고 고향집에 돌아온 젊은이의 죽지는 꺾이여있었다. 그의 심장은 괴로움에 쓰리고 아팠다.

주의 소재지인 라호르의 통치기관들에 자리를 잡았던 샤르마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디아쪽으로 나왔다.

판도리비비는 인디아쪽의 마을이였으므로 거기에 있던 샤르마가문에서는 다른 변동이 없었다.

인디아쪽의 판잡주에 살던 이슬람교도들은 파키스탄쪽으로 이주하느라고 부산을 피웠지만 인디아중부와 남부쪽의 무슬림들은 인디아에는 무슬림도 있을수 있다는 나라의 립장을 따라 거의 대다수가 정든 고장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오늘도 인디아는 세계적으로 무슬림이 제일 많은 나라로 되고있다. 오늘 인디아에는 1억 5천만의 무슬림이 있다고 한다. 분렬당시에도 인디아에는 무슬림이 아주 많았다. 인디아는 서로 다른 교들을 다 포섭하는데로 나갔던것이다.

오늘 인디아의 헌법을 보면 인디아인이 첫번째이고 그다음 힌두교도, 무슬림, 그리스도교, 씨크족 등으로 되여있다. 파키스탄에서는 무슬림을 먼저 놓는다.

일시 고향마을로 돌아온 비슈와나스는 잠시 한숨을 돌리였다.

하루밤 자면 생각은 더 현명해지는것이다.

비슈와나스는 고향집에서 한주일동안 자고 깨며 줄곧 고심하였다. 밤에 눕고 아침에 일어나도 그의 마음은 어딘가 허전하였다.

리념이 없거니 어이 살아 삶이라 할수 있으랴.

비슈와나스는 몸부림쳤다. 그저 끌리는대로 몸과 마음을 맡긴다는것은 그에게는 있을수 없는 일이였다.

라챠만 다스를 비롯한 할아버지계렬의 어른들은 마침이라고 생각하며 광활한 가문의 령지를 떠맡아 관리하기를 권고하였다.

하지만 금방 하늘을 날기 시작하던 그의 나래가 가없는 세월을 앞에 놓고 여기에 내려앉을수는 없는것이였다. 운명을 맞받아 더 높이 날고싶었다. 이 세상 어디로든지, 그 어디로든지!

청춘은 다시 오지 않는다. 그 시절에 놓쳐버린 값비싼 진주는 인생에 다시 붙잡을 길이 없는것이다. 청춘시절을 잃은 사람의 앞길이 어찌 윤택해질수 있으랴.

바드리 나트 취바와 두르가데비는 맏아들이 보다 큰 인물이 되기를 바랐다. 하여 그들은 비슈와나스의 발걸음을 굳이 붙잡으려고는 하지 않았다. 그에 대한 그만한 믿음도 있었던것이다.

싼또쉬 꾸마리는 순박하고 조용한 녀성이였다. 결혼한 몸이지만 아직 애어린 소녀같은 순진한 미소는 사람들의 가슴속에 말없이 평온이 깃들게 하였다.

그에게는 나라의 분렬로 하여 자기 주인이 라호르를 떠나게 되였고 정들었던 《트리뷴》을 잃게 된것은 가슴아픈 일이지만 도무지 집에 붙어있지를 않는 그가 그것으로 하여 며칠간이라도 집에 와있게 된것은 다행이라 하지 않을수 없는것이였다. 결혼후 이렇게 며칠간 집에 함께 있어보기는 처음이였다. 비슈와나스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좋았다.

싼또쉬 꾸마리는 《쉬바신》을 우러러 날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빌었다. 《쉬바신》은 힌두교의 기본신앙대상의 하나로서 그가 어려서부터 숭상하는 파괴의 신이였다. 그의 부모들이 《쉬바신》은 다른 신이 없을 때 제일먼저 나온 력사가 깊은 신이라고 하면서 온갖 사회악을 짓부시는 좋은 신으로 섬기고있었던것이

다. 그러한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그는 《쉬바신》에 대한 신앙심이 대단히 지극하였다.

싼또쉬 꾸마리는 무슨 일에서나 열정적인 자기 주인이 이 란리판을 무사히 넘기고 모든 일이 다 잘되기만을 빌고빌었다. 날마다 빌고빌면서도 이 젊은 녀인은 《트리뷴》을 읽은 자기 주인이 거기서 련마해온 필력과 경험으로 장차 어떤 길을 톺아올라가겠는지는 상상할수 없었다. 하지만 이 세상에 큰일을 하는 많은 사내들이 성실하게 빌고비는 녀성들의 그 마음에 떠받들리워있는지 어이 알랴.

며칠간 집에 있으며 비슈와나스는 한생의 반려자가 된 꾸마리에 대해, 또 그리고 가족을 가진 자기에 대해서도 새삼스레 깨달으며 앞일을 설계해보았다. 부모에게 의존해서 살수는 없기때문에 무엇을 해야만 하였다.

그러나 가문의 땅을 관리하고싶지는 않았다.

태여날 때부터 차례진 그 령지에 모든것을 얹고 숙명으로 인생을 보내고싶지는 않았다.

머리우에 푸르게 열려진 하늘가를 향해, 그 하늘끝에 맞닿은 대지를 향해 그는 소리쳤다.

아 하늘아, 땅아, 나에게 광명의 빛을 뿌리라.

드디여 그는 일어섰다. 모든것이 결심되였던것이다. 결심된 이상 고향마을에 더 앉아있을수가 없었다.

사람이 결혼하면 고쳐지는 습성도 있고 성격도 좀 달라진다고 하지만 비슈와나스의 가슴속에 퍼덕이는 그 두루미의 세찬 나래는 조금도 늦춤없이 더 멀리 날아가려고만 용쓰고있었다.

너무도 젊어서인가?

아니였다. 비슈와나스자신이기도 한 그 두루미는 한생을 그렇게 날았다. 그는 모든 세간살이를 안해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자유를 찾아 한생을 그렇게 날고날았다.

그는 부모들에게 뉴델리에 가 직업을 잡고오겠노라고 다짐했으며 싼또쉬 꾸마리에게는 집을 장만한 다음 데리러오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다짐, 그 약속은 다름아닌 자기자신에게 하는 맹세이기도 하

였다. 하지만 그에 대한 담보는 아직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명백하였다. 그것은 자기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가정도 나라도 지킬수 없다는 그것이였다.

그런 의지, 그런 신념을 잃지 않는것이 중요하였다. 바로 그것이 남아의 징표로도 되지 않을가.

이왕 이렇게 된바엔 수도에 발을 붙여보자는것이 비슈와나스의 결심이였던것이다.

그는 자기 삶의 앞길을 자기가 선택하고싶었다.

그는 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생활은 이제부터라고 생각하고 모든것은 뚫고나가봐야 하였다.

두려운것은 없었다. 그의 혈기는 왕성했고 의지는 확고했다.

그는 이 혼잡판이 수습되기 전에 다시 라호르에 들어갔다. 친구들 그리고 만나야 할 사람들을 다 만나보고 움직이기 위해서였다.

알따브 후쎄인은 라호르재판소에 그대로 있었다. 그는 움직일 필요가 없었다. 그는 무슬림이였던것이다. 이슬람교를 따르던 그의 가족들은 판도리에서 파키스탄으로 된 라호르에 이미 다 이주해와있었다.

라호르는 여전히 복새판이였다.

비슈와나스는 알따브 후쎄인을 비롯한 친구들과 만나 형세에는 관계없는 사람들처럼 상을 차려놓고 회포를 나누었으며 자기들이 갈 길을 한밤 이야기하였다.

정의감으로 불타는 20대 초엽의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슴아픈것은 나라의 분렬이였다.

나라가 분렬되는 이 시각 조국앞에 선 의무보다 더 중요한것이 무엇이랴.

젊은이들은 둘로 갈라지는 조국을 안고 몸부림쳤다.

젊고 건장한 그들은 취하지도 않았다. 마실수록 강렬해지는듯싶었다.

《알따브, 우린 왜 헤여져야 하는가?》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에 있나?》

두 친구는 가슴을 치며 통탄하였다.

어이하여 서로 친한 우리가 의사에는 관계없이 갈라져야 한단 말인가.

나라의 분렬, 이는 종교적분쟁이 안아온 비극이였다.

한 땅덩이가 둘로 갈라지는것과 함께 한몸인줄 알았던 가장 가까운 친구와도 서로 갈라져야 했다.

비슈와나스와 알따브는 헤여져선 못살 딱친구였다. 그 둘은 말그대로 한몸, 한그림자였다.

그처럼 가까운 동무가 있었던가. 한마을에서 태여나 소학교시절을 함께 보냈고 대학시절도 한기숙사, 한호실에서 함께 딩군 친구!

그와 함께 한 도시 라호르에서 인생을 그렇게 손잡고 걸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으랴.

그 둘은 서로가 제2의 《나》였다.

하지만 그와도 서로 국적을 달리해야 했다. 한지맥으로 잇닿은 땅에서 두 나라 사람으로 갈라져야 했다. 조국이 분렬될 때 가까운 친구와도 갈라져야 하는 이보다 가슴아픈 일이 또 어데 있으랴.

그것이 바로 나라의 분렬이 소꿉시절 친구들에게 가져다준 《선물》이였다.

그것이 바로 제나름의 신앙이 이 나라 청춘들에게 가져다준 《배려》였다.

수천년 이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교파간의 싸움으로 갈라져야 하는것이 이 나라의 비극이였다.

절통한 나라의 이 분렬, 이 비극을 체험하면서 그들은 자기 조국의 전망과 미래의 사회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게 되였다.

영령인디아의 한개 주격으로 되여 식민지통치를 받아온 지역들이 이 큰 덩어리에서 왜 제각기 떨어져나가고있는것인가. 파키스탄, 스리랑카, 먄마…

물론 그것은 식민주의자들의 분할통치수법, 분렬정책에 기인되겠지만 무시할수 없는것은 그들의 신앙적차이, 리념적차이인것이다.

이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 인류가 단합하여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새 사회에로 나아갈 길을 밝혀줄 그런 리념, 그런 사상은 이 세상에 없을가?!

그런 사상을 찾아가는 길이 있다면 인생을 그길로 줄달음쳐 보련만!

청춘의 마음은 앞서달리는데 그들의 눈에 보이는 길은 아리숭하였다. 불안한 그들의 가슴은 넘쳐흐르고 답답했다.

《비슈, 잘 가라구!》

《잘 있으라구!》

그들은 포옹하며 말하였다.

《알따브, 우리 서로 마음만은 헤여지지 말자구!》

《헤여질수 없는 우리들이지!》

젊은 혈기의 가슴들은 갈증을 푸는 물을 목마르게 바랐다. 갈증을 푸는 그 물은 타고르가 바라고바란 자유인디아였다.

자유인디아를 목마르게 그리며 비슈와나스는 시를 읊었다.

…

오시라 갈증을 푸는 물이여!
환희의 흐름으로 폭포처럼 쏟아져
굳어진 심장을 헤치라!
용솟음치는 샘물은 신비로운 암흑속에서
뛰여나오거니
오시라 순결한 그대여!
태양이 그대 오길 반겨 기다림은
그대는 태양의 소꿉동무
그의 광명의 서정시는 그대 마음속 금빛시가를
불러일으키지 않느냐

오시라! 휘황한 그대여!
그 사막의 악마가 그대에게 뭔가 주문을 외워
돌빗장으로 그대를 가두려는가?
그대의 감옥담벽을 부시고 그대의 물결과 함께
자유로이 춤추며 뛰여오라
오시라! 굳세고 변함없는 그대여!

그들은 자기들이 달려야 할 인생렬차의 궤도를 이 한밤에 여기저기로 다 뻗쳐보는듯 했다.

갈래많은 인생의 궤도는 여기저기로 다 뻗어있지만 사람은 언제나 한길을 선택하기마련이다.

인생의 리치는 복잡한것 같지만 지내보면 세상 단순한것이 그것 같기도 한것이다. 복잡하게 생각할것이 없었다.

비슈와나스는 모든것을 간단히 생각했다.

생활은 명백한것이다. 명백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단순한것도 복잡하게 되는것이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은 있기마련이다. 길은 합쳐지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련만 사람이 갈 길은 언제나 하나이다.

우선 가보자, 뉴델리로!

4. 《하느님》이 준 기회(2)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은 그 어디에 가서도 자유롭게 행동할수 있는 거처지를 찾는가보다. 비슈와나스가 바로 그랬다. 뉴델리에 도착한 그는 번화한 거리에 있는 큰 호텔에 들지 않고 남들의 눈에 잘 띄지 않으면서도 값이 그닥 비싸지 않은 자그마한 호텔을 찾아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는 도착한 첫날부터 일자리를 얻어보려고 거리에 나섰다.

인디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뉴델리!

쟈무나강연안에 자리잡고있는 이 도시는 국내각지와 련결된 도로와 철길, 국제항공역이 있는 교통의 요지로서 모두가 바삐 뛰는 대도시였다.

이슬람교건축물들과 옛 천문대를 비롯한 유적유물들이 많은 력사의 이 도시를 거닐며 비슈와나스는 오직 앞날만을 생각하고있었다.

여기에도 샤르마가문의 혈맥이 더러 뻗어있기는 하였지만 비슈와나스는 거기에 거처지를 정하거나 그들에게 의탁해서 직업

을 얻어볼 생각은 애초에 하지 않았다. 아르. 아르. 샤르마에게서 받은 랭대의 교훈도 있었거니와 더우기는 그 누구도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대신해줄수 없다고 생각키웠기때문이였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대신하여 길을 걸어줄수는 없는것이다. 비슈와나스는 혼자서 이 거리, 저 거리를 살피며 돌아갔다.

아무 소득이 없이 그렇게 이틀이 지나갔다.

거리의 사람은 백만도 넘지만 비슈와나스를 알아보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다.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영영 나타날것 같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는 락심하지 않고 계속 걸어갔다. 물결치는 이 사람들속에 보이지 않게 끼여있다고 하더라도 어찌 자기를 잃어버릴수 있겠는가.

그에게는 의지가 있었다.

포부와 의지, 이것은 인생길에서 두 날개와도 같은것이여서 그것을 지닌 인간은 길을 끝까지 가는것이다. 갈 길은 아직 멀어도 그길은 한걸음한걸음 줄어들기마련이다.

거리에는 마차와 뻐스, 궤도전차가 다니고있었다. 또한 많지는 않았지만 택시들도 보이였다.

비슈와나스는 마차나 택시를 리용할 생각은 없었다. 그는 자기 발로 걸으며 여기저기 계속 일자리를 수소문하며 돌아갔다.

독립을 맞이한 나라의 수도는 혼잡을 이루고있었다.

대양을 건너 날아들어온 외국인들은 여전히 득실거리고있었다.

그럴수밖에 없었다. 영국의 국기는 내리워지고 인디아사람들이 정권을 이양받았다고 하지만 그들은 나라를 관리해본 경험이 없었기때문에 영국인들을 그냥 초청하고있었던것이다.

불안정한 시대에 국가운영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였다.

나라의 지도자들은 라지오를 통해서 연설들을 하였고 영국과 아메리카의 영화회사들은 그들을 위해서 시사영화를 다투어 제작하였다.

영화관들에서는 인디아의 분할을 내용으로 한 영화들이 상영되고있었다. 그 영화들에는 드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은 인디아와 파키스탄의 지도자들이라든가 국회회의라든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화면은 번쩍거렸으나 집을 잃고 국경을 넘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에 잠긴 모습을 보여주는 화면은 없었다.

나라의 분렬로 하여 비참한 운명에 처한 사람들의 모습은 관객의 눈길에서, 국민지도자들의 눈길에서, 전세계인민들의 눈길에서 가리워져있었다.

이렇게 생활은 흘러가고있었다.

1947년의 뉴델리는 보는 사람마다에 따라 각이하였다. 어떤이에게는 출세를 위한 절호의 장소이기도 하였고 어떤이에게는 돈벌이를 위한 좋은 장소이기도 하였고 또 어떤이에게는 살기 힘든 곳이기도 하였다.

나라의 분렬이 없었다면 비슈와나스 역시 이렇듯 혼자서 일자리를 찾아 뉴델리의 거리를 방황하지 않았을것이다.

정치가들과 온갖 교파의 설교자들, 작가와 평론가들, 로동조합지도자들과 대학교수, 인기배우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저마다의 말들을 하고있던 시대였다.

많은 사람들이 미련을 가지고 독립된 나라의 미래를 관망하고있었지만 좋은 생활은 결코 저절로 오지 않을것이였다.

인디아사람들은 근면한 사람들이다. 비슈와나스는 자기 조국의 근면한 사람들이 모두가 안착된 직업을 가지고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마지않았다.

하지만 보라. 이 나라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방황하고있는것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일자리가 차례지지 않은 사람들일것이다.

비슈와나스의 눈에는 비오는 날 우산없이 진창길을 걷던 고향마을의 농군들의 모습이 보여왔다.

그는 일거리를 찾아 며칠간 뉴델리의 거리를 거닐다보니 부유한 가문에서 태여나 편안히 살아온 자기자신의 지난날이 미안하게 생각되기도 하였다.

비슈와나스는 그 나날들과 멀리 헤여지려고나 하는듯이 붐비는 사람들속에 섞여 그냥 앞으로만 걸어갔다.

사흘째 되는 날이였다.

그날은 그가 생일 21돐을 맞는 1947년 9월 15일이였다. 그날도 그의 가슴은 그 어디에 가서 즐겨볼 마음의 여유는커녕 점점 침습해오는 시간의 촉박감으로 끓고있었다.

여느날과 다름없이 일찌기 일어난 그는 간이매대에서 커피 한고뿌와 쌘드위치로 간단히 요기를 하였다. 언제나 자신에게는 모든것을 넉넉히 베풀지 않는 그였다.

이렇게 그날에도 그는 이른새벽부터 거리를 거닐기 시작하였다.

쉬임없이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리기마련인가보다. 생일이든 명절이든 가림없이 길을 재촉하는 사람에게 어찌 인생의 길이 당겨지지 않을수 있으랴.

정말로 우연하게도 그날에 일거리를 얻는 기회가 찾아올줄은 몰랐다.

그는 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것을 자기와 결부시켜 생각해보며 스적스적 걸어나갔다. 뉴델리에는 대학시절에는 물론 중학시절부터 자주 와보았지만 지금은 그때의 시점과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모든것을 들여다보게 되는것이였다. 그때에는 흥미와 유람, 취재의 길이였다면 지금은 이 도시에 발을 붙여야 할 운명의 길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이날에도 그는 그렇게 온종일 거리를 이어가며 무엇이 맞다들기를 바랐다. 이윽고 해가 떨어질 저녁시간이 다가오고있었다.

정녕 오늘에도 허사인가?

비슈와나스는 조바심이 났다. 그럴수록 운명이 점점 심각하게 엄습해오며 그를 괴롭혔다.

다시 판도리마을로 가야 하는가?

아니다. 나는 큰소리치고 집을 나서지 않았는가.

죽어도 되돌아갈수는 없었다. 그것은 수치다. 어떻게 해서든 이 도시에 뚫고들어가야 했다.

인간은 살아있는 한 절대로 희망을 잃어서는 안된다.

그는 어떤 난관에 부닥쳐도 이름있는 사람으로 되겠다는 포부만은 버리지 않고있었다.

이런저런 궁리를 하며 그는 어떤 큰 거리에 들어서게 되였다. 그 거리의 첫 아빠트에 바라캄바(열두개 전주)거리라고 쓴 패쪽이 눈에 띄웠다. 비슈와나스는 정말 이 거리에 열두개의 전주가 있는가 하여 전주를 세여보며 걸어나갔다. 절반쯤 전주를 셌을 때 그는 사람들이 모여 무엇인가를 들여다보고있는 청사앞에 이르게 되였다. 그 청사에는 《쏘련대사관공보부》라고 씌여져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청사앞에 진렬된 사진들을 들여다보고있는것이였다.

비슈와나스도 그 진렬판에 머리를 기웃하였다. 코수염을 질게 기른 쓰딸린의 큼직한 사진이 선참 눈에 안겨왔다. 쓰딸린의 사진을 중심으로 하여 그 좌우에는 인민경제의 복구발전에서 이룩한 사회주의쏘련의 성과를 소개하는 사진들이 주런이 나붙어있었다.

비슈와나스는 무심코 들여다보고있었다. 이때 어떤 사람이 뒤에 붙어서며 말을 붙이는것이였다.

《당신 여기서 뭘하고있는가?》

비슈와나스는 머리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백인이였다. 늘씬한 키에 노란 눈을 가진 서양사람이 그에게 말을 건네였던것이다. 그는 영어를 아주 잘하고있었다.

《사진 보고있는 중이요. 이건 사람들이 다 보라고 붙여놓지 않았나?》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비슈와나스를 보고 그때에야 그 서양사람은 느슨한 웃음을 지으며 자기 소개를 하는것이였다.

《나는 쏘련대사관 공보부책임자 쥐. 에피모브요. 실은 당신을 좀 사귀고싶어서…》

비슈와나스는 자기 소개를 하지 않을수 없었다.

《내 이름은 비슈와나스요. 직업적인 기자였는데 나라가 분렬되면서 라호르에서 뉴델리로 온 참이요.》

《아, 기자!》

그 공보부책임자란 사람은 비슈와나스의 말을 듣고 매우 반가와하며 손을 내미는것이였다. 그의 얼굴에는 필요한 사람을 정확히 찾았다는 만족의 빛이 어리였다. 보매 그는 사진을 보고있는 사람들의 뒤에 서서 한사람한사람 충분히 일별하고 비슈와나스에

게 접어든 자세였다.

《우리 쏘련대사관에서 잡지를 하나 발간하려고 하는데 당신의 도움을 좀 받을수 있는가?》

《물론!》

비슈와나스의 대답은 간단명료하였다. 무엇이든지 일감을 찾고있던 그인지라 생각해볼것도 없었다.

첫 마디에 시원스럽게 대답하는 이 젊은이가 마음에 들었는지 에피모브는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자며 청사안으로 이끄는것이였다.

오호라, 무엇을 마다하랴. 기회는 새와 같은것이여서 날아가기전에 붙잡으라고 했다.

이렇게 되여 비슈와나스는 사전의 아무런 수속절차도 없이 치외법권적인 그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였다. 그것도 공식외교관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결국 그는 처음으로 《국경》을 넘은셈이였다.

그는 대담하였다. 그의 그 대담성에 성공의 그림자가 따르기 시작하였다.

비슈와나스는 무게있게 꾸려진 방에서 에피모브와 마주앉게 되였다. 창가림은 진한 밤색무늬의 면비로도로 하였는데 천정에서부터 바닥에까지 길게 내리드리워져있었다. 그것은 이 방에 들어서는 사람들에게 엄엄한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는듯싶었다. 방꾸밈을 그렇게 한것은 여기서 토의되는 모든 문제들의 의미를 몇갑절 더해주려는 의도에서인지.

인차 김이 문문 나는 커피잔이 그들앞에 놓여졌다.

에피모브는 에두르지 않고 직방 결론적인 말부터 하는것이였다. 그것이 로씨야사람들의 일반적인 성격인지 에피모브는 갱핏한 생김새와는 달리 매우 괄괄한 사람이였다.

《오는 11월 7일이 쏘련국경절인데 그날을 맞으며 우리는 〈쏘베트 땅〉이라는 잡지를 내오려고 하오. 당신 그 창간호의 편집을 한번 책임지고 해볼 의향이 있는가?》

《물론!》

비슈와나스의 대답은 첫 대답과 다를바 없었다. 그 역시 에두르

지 않고 결론적인 합의를 앞세워야 시원해하는 성격이였다. 이렇게 두사람은 통성하였다.

그다음 실무적인 대화가 오갔다.

에피모브는 역시 외교관이였으며 실무적이였다. 그는 주재국의 적합한 대상과 맞다들어 시원스럽게 통성하였다고는 생각하였지만 실수하면 안되는 자기의 외교적사명감으로 하여 상대의 정치적견해와 실력을 깊이있게 가늠해보지 않을수 없는것이였다. 그것도 그럴것이 상대가 너무도 젊은 나이였기때문이였다. 젊은이들의 장기인 열정을 보고 그에게 접근하였지만 젊은이들에게는 그들대로의 축적과 경험이 부족한 약점이 있을수도 있는것이였다.

《당신 우리 쏘련력사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았는가?》

《많이는 보지 못하였는데 어느 정도는 읽었소.》

《쏘련혁명에 대해서는 알고있는가?》

말을 이어가는 에피모브의 표정은 아무런 변화없이 여전히 웃음을 띠고있었으나 그의 눈길만은 상대방의 심리를 엿보려는듯 가늘게 쪼프려지고있었다.

《례하면 레닌이나 쓰딸린에 대해서…》

젊은이는 그의 물음에 아무런 불편도 느끼지 않으며 동안을 두지 않고 앞질러가며 시원스럽게 대답하는것이였다.

《나는 기자인데 왜 레닌과 쓰딸린을 모르겠는가?! 쏘련의 국경절인 11월 7일이 바로 1917년 2월혁명에 의하여 짜리전제제도가 전복된 후 로씨야로동계급이 레닌의 지도밑에 사회주의10월혁명을 수행하고 지구상에서 첫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를 창건한 날이라는것을 나는 알고있소. 레닌은 지구상에서 첫 사회주의국가를 세운 큰 사람이라는것도.

그리고 쓰딸린에 대해서 내가 알고있는것은 그 역시 사회주의10월혁명승리에 이바지한 사람으로서 기본은 당신들의 조국전쟁인 히틀러도배들과의 싸움을 승리에로 이끈 큰 인물이라는것이요.》

에피모브는 만족하였다. 젊은 사람이 그쯤하면 자기가 바라는것을 왕성한 의욕으로 원만히 해낼것이라는 믿음이 대번에 가는것이였다. 그는 쏘련을 소개하는 많은 사진자료들과 영어로 된 소책자

들을 한가득 주면서 말하였다.

《이것들을 참고로 하여 당신이 한번 통채로 편집해주길 바라오. 40페지정도로…》

《언제까지?》

《한주일! 당신 나이 젊은데 그 시간이면 능히 하지 않을가.》

에피모브는 거듭 믿음을 표시하며 영문으로 잘 만들어 견본을 가져오라고 당부하는것이였다.

비슈와나스는 파쑈도이췰란드와의 처절한 전쟁에서 영웅적으로 승리한 이들이 국제적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각 방면으로 노력하고있다는것을 비스듬이 가늠할수가 있었다.

쏘도전쟁에서 도이췰란드군은 도합 1 000만여명의 병력을 잃었고 쏘련은 2 000만여명의 희생의 대가로 정의와 평화를 지켰다. 인류력사에서 가장 영웅적이고 비장한 한페지를 장식한 이 한가지만으로도 쏘련은 부끄럽지 않게 대국으로 불리울만 하였다.

비슈와나스 개인적으로는 쏘련을 도와주는 길에 나서지 못할 아무런 조건도 없었다. 오히려 에피모브가, 아니 그 나라의 당과 정부의 노력과 립장이 리해되는것이였다.

비슈와나스는 에피모브가 내미는 손을 마주잡았다. 옛스럽게 장식되여있는 이 건물안에서는 언제나 현존문제들만이 론의되고있는것이였다. 워낙 외교관들의 석상은 다 그렇게 꾸려져있는것인지.

이렇게 비슈와나스는 쏘련대사관의 청탁에 쾌히 응하고 높은 철울타리를 두른 그 청사의 정문을 버젓이 나섰다. 자료들이 가득 들어있는 구럭지를 들고 그는 숙소를 찾아 부리나케 걸음을 놓았다. 이 거리에 열두개의 전주가 있든없든 그게 무슨 상관이랴. 그런것은 생각나지도 않았다.

아직은 자기의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이 거리, 이 도시에서 이제 그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 인생의 먼먼길을 헤쳐나가게 되려는지 그때에는 그자신도 가늠할수 없었다.

그날에는 그 기회를 붙잡은것이 자기의 운명에서 어떤 전환의 계기가 되는지를 다는 몰랐지만 그 기회로 하여 비슈와나스는 사회주의쏘련의 문턱을 자연스럽게 넘어서게 되였다.

오늘날 그가 웃으며 말하듯이 《하느님》이 그에게 준 두번째 기회의 날은 이렇듯 인생의 자욱에 잊지 못할 생일날로 뚜렷이 새겨졌다. 그것도 력사다.

인생은 정말로 자기 행로에 있는 각이한 기회들의 종합이런듯싶다.

5. 《유토피어》세계에로

자유와 평등은 인간에게 차례진 권리이다.

인간이 오랜 세월 상상속에서만 그려보던 사유재산이 없는 리상적인 나라 《유토피어》가 20세기에 이르러 정말로 지구상에 세워졌으니 그 세계에로 한번 들어가볼만도 한것이다.

모어(영국)가 1616년에 내놓은 그 공상소설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이 다같이 일하고 다같이 잘사는 리상향이 그려진 후 인류는 그런 사회를 얼마나 지향하고 념원해왔던가.

그런 지향, 그런 념원은 그이후 깜빠넬라(이딸리아)의 공상소설 《태양의 도시》에서, 베이컨(영국)의 공상소설 《신애틀랜티스》에서 계속 그려져왔다.

미래의 평등한 사회에 대한 공상을 펼쳐보인 근대초기의 이러한 공상적사회주의의 선구적작품들에서 그려졌던 그 사회주의라는 이름을 붙인 쏘련이라는 나라에 한번 들어가보는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비슈와나스에게 있어서 물론 이것은 우연적으로 이루어진것이였다. 하지만 맞다들린바치고는 한번 해볼 판이였다.

광활한 령지를 세습적으로 물려받은 샤르마가문의 후손이 사적소유가 없는 《유토피어》에로 들어간다는것은 모순되는 일이기는 하였지만 구태여 그런것에 구애될 필요는 느끼지 않았다.

그는 이미 대학시절에 《태양의 도시》의 주민들이 인디아계의 이주민들이였다는데 대해 흥미를 느낀바 있었다. 물론 그것

은 작가의 환상이였지만 매혹을 불러일으킬만 한것이였다.

비슈와나스는 사회주의쏘련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하였다.

우선 그는 쏘련의 력사와 성과들을 소개한 자료들을 읽고 또 읽었다. 그 자료들가운데서 오늘의 쏘련을 보여주는데 보다 가깝다고 생각되는것들을 우선 취사선택하여 편집해보았다. 그런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였다. 중요한것은 그 자료들을 변증법적유물론과 사회주의리론을 자로 하여 고찰하고 분석하는것이였다. 좀 힘들었다. 그러고보면 자기는 사회주의리론에 대한 조예가 너무도 없었다는것이 알리였다.

그는 도서관을 찾아 달려갔다. 다행히도 영문으로 된 레닌과 쓰딸린의 저서들이 뉴델리에는 들어와있었다. 그 저서들가운데서 필요한것들을 골라읽었다.

레닌의 저서들을 읽으며 그는 한 나라 또는 몇개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승리의 가능성에 관한 리론과 맑스주의국가리론, 자본주의의 불균등적발전법칙에 대하여 자기나름의 일가견을 가져보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그는 쓰딸린의 저서들도 읽으며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깊이있는 리해를 해보려고 노력하였다.

모어의 《유토피어》는 읽으면서 그대로 리해하면 되였지만 레닌과 쓰딸린의 저서들은 읽고 한참 음미해보아야 했으며 또 어떤것들은 련관도서를 보면서 품들여 사색해보아야 했다.

문득 알따브 후쎄인이 생각났다. 이런 때 그가 옆에 있으면 토론도 해보련만.

비슈와나스의 앞에는 철학서적들이 무둑히 쌓여졌다. 갑자기 그는 철학가가 된듯싶었다.

흔히 20대에는 문학홍역에 걸리고 30대에는 철학홍역에 걸린다고 하였지만 10대에 벌써 문학홍역에 걸리였던 그는 20대에 들어서면서 철학홍역에 걸린듯싶었다. 앞날에로 성급하게 달음박질쳐가는 정열의 인간들에게는 모든것이 그렇듯 속성으로 찾아오는것인지.

예로부터 문학과 철학은 쌍둥이라는 말이 있다. 아마도 그것은 문학이 앞서가며 감성적으로 펼친 생활화폭을 철학이 리성적으

로 정립하며 또한 철학이 앞서가며 론리적으로 제시한것을 문학이 생활적으로 형상한다는 의미에서 하는 말인지.

한때는 문학서적에 파묻힌적도 있었던 비슈와나스가 지금은 밤을 패며 세계철학사와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들을 품을 들여 읽고있는것이였다. 문학이든 철학이든 모든 학문은 사적인 고찰우에서 연구분석하여야 깊이가 있으며 그 정당성이 리해되는것이다.

역시 문학과 철학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소유해야 할, 아니 소유하고있어야 할 공동의 학문인듯싶다.

그는 며칠째 책에 파묻혀있었다. 사람이 혼자 공부할수 있는 제일 오래고도 큰 학교는 역시 책이였다. 책은 인간생활에서 가장 요긴하고 귀중한 보물이였다.

그는 이미 공부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였다.

다행히도 대학기간에 서로서로 론쟁하며 몇년동안 닦은 토대가 있어 그는 그 모든것에 대한 현실적인 사고를 빠른 시간에 할수 있었다. 하지만 고충은 있었다. 사실 그가 그때 그처럼 품들여 탐독한것은 맑스—레닌주의에 공명했다든가 아니면 그 어떤 학술적연구를 위한것이 아니였다. 다만 그것은 잡지를 편집하기 위해서였고 구체적으로는 사회주의쏘련에 접근하기 위해서였다고 해야 할것이다.

여하튼간에 그는 고전들에 대한 탐독과정에 사회주의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되였다. 그 좋은 인상, 좋은 견해가 없었다면 그가 맹목적으로 쏘련과 손을 잡는 일에 나설리는 없었다. 그는 자기가 선택한 자료들에 대해 일정한 주해를 주며 주야간 편집전투를 벌리였다. 시간이 없었다. 모든것을 빨리 해내야 했다.

그는 잡지가 창간호라는것을 념두에 두고 우선 쏘련의 국가체제와 인디아와의 평화적인 관계문제에 대한 글을 실었다. 그리고 쏘련에서 달성한 성과들에 대한 자료들을 각 분야에 걸쳐 사진과 함께 될수록 다양하게 편집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렇게 《쏘베트 땅》은 비슈와나스의 손에 의하여 시작부터 쏘련사람들이 바란대로 반정치잡지형식을 갖추게 되였다.

닷새만에 잡지편집은 결속되여 에피모브의 손에 넘겨졌다.

오늘은 엿새째 되는 날이다. 비슈와나스는 초조감과 기대감으로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바라캄바거리에 들어섰다. 어제 에피모브는 그 견본을 받으며 다음날 아침에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였던것이다. 약속한 시간에 에피모브는 어김없이 정문앞에 나와있었다.

방에 들어선 그는 대만족을 표시하는것이였다. 대사와도 합의를 보았다며 그는 주재국의 이 젊은이를 한껏 춰주는것이였다. 비슈와나스는 아무런 표정없이 덤덤히 앉아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안도의 숨이 나갔다.

에피모브는 견본을 번지며 몇개의 이런이런 사진은 다른것으로 교체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비슈와나스는 그 의견에 동의하여 지적된 사진들을 그자리에서 바꾸어넣는것으로써 《쏘베트 땅》의 창간호편집은 완성된것으로 합의되였다.

그러나 비슈와나스의 몫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친구, 이왕 나선바엔 끝까지 도와주지 않겠나? 인쇄까지 말이네.》 이렇게 말하는 에피모브의 마음속에는 벌써 비슈와나스가 없어서는 안될 인물로 자리잡고있었다. 그럴수밖에 없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쏘련대사관에는 인쇄기지가 꾸려져있지 않았던것이다. 설사 꾸려져있다 해도 비슈와나스와 같이 젊고 실력이 엿보이는 주재국사람을 다시 찾기 힘들것이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들었기때문이였다.

《나는 당신이 우리의 일을 끝까지 협력해주리라 믿네.》

《물론!》

비슈와나스의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올수 없었다. 하지만 쏘련대사관에서 나온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는 여기에 아는 인쇄기지가 하나도 없었던것이다. 그런 고충을 그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려 하지 않았다. 그처럼 유명한 하이네도 자기의 고충을 말하기 시작하자 모두가 하품을 하였다고 하지 않는가.

인쇄기지를 무조건 찾아야 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말없이 자기가 해야 했다.

비슈와나스는 제껵 자전거를 하나 샀다.

이때부터 뉴델리에서의 그의 자전거행군은 시작되였다. 처음엔 도보로, 그다음엔 자전거로 시작된 그의 행군길은 미구에 메르쎄데스벤즈, 국제비행기의 행군길로 이어져있었다.

그는 행인들에게 물어보며 또 간판들을 보며 거리들을 뒤지기 시작하였다. 자전거행군은 계속되였다.

그렇게 며칠간 돌아치며 그는 몇개의 인쇄기지들을 찾아냈고 거기서 찍은 견본들을 손에 쥐게 되였다. 그것들을 가지고 비슈와나스는 에피모브를 찾아갔다.

에피모브는 여러 활자견본들중에서 하나를 짚으며 거기서 잡지를 인쇄하자고 하면서 비슈와나스가 편집한 원고들을 다시 주며 조판할것을 부탁하였다.

쏘련대사관에서는 날이 갈수록 열정적이며 책임적인 비슈와나스에게 점점 마음이 끌리게 되였다.

비슈와나스는 에피모브에게 같이 가자고 하였지만 그는 당신이 통채로 맡아하고 인쇄비는 자기가 지불하겠다고 하는것이였다. 그렇게 되여 그 원고는 샤뤼출판사에서 조판을 하게 되였다.

비슈와나스는 조판공들과 함께 살았다.

조판을 하는데 2주일이나 걸렸다. 그때는 다 손로동으로 활자작업을 하나하나 하였기때문이다. 처음 나온 게라지를 본 쏘련대사는 활자가 곱지 못하다고 하면서 좀 실퉁해하였다. 그리하여 그 출판사에 가서 활자를 고운것으로 바꿔 다시 하다나니 11월 5일에야 비로소 잡지가 완성되게 되였다. 국경절 이틀전이였다.

쏘련대사는 만족을 표시하였다.

박두하여 끝냈지만 성과적으로 보장한 안도감과 쾌감을 안고 비슈와나스는 뉴델리에 와서 처음으로 하루 휴식할수가 있었다.

그날은 마침 디왈리축전날이였다. 이날은 인디아의 가장 큰 민속명절이였다. 이 명절은 인디아력법에 따라 해마다 날자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대체로 10월 아니면 11월에 당군 하였다.

디왈리축전를 일명 불축전이라고도 하였다.

이날에는 정부청사나 살림집이나 할것없이 모든 건물들의 불을 다 켠다. 또한 집집마다의 대문에 내건 초롱들은 명절의 흥취를 한껏 돋구어준다.

도시는 대낮같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오고간다. 이날에 모든 사람들은 사탕, 과자 1키로씩을 사가지고 가까운 친척들을 찾아간

다. 모든 집들에선 가족, 친척들이 모여 당과류들을 먹으며 즐긴다. 또한 서로 다른 가족들을 찾아다니기도 하며 지어는 틀렸던 사람들도 이날에 만나 화해하고 친구가 되기도 한다. 이날에 모여앉은 사람들은 가지고온 당과류들을 호상 교환하기도 한다. 그 재미란 이를데 없다. 이것도 하나의 풍습이였다.

나라가 독립되여 처음으로 맞는 디왈리축전이여서인지 수도의 거리는 더욱 활기를 띤듯싶었다.

비슈와나스는 흥성이는 명절의 이 거리를 혼자 거닐었다. 그는 어디 찾아갈데가 없었다. 또한 집도 마련하지 못한 이 도시에 자기를 찾아올 사람도 없었다.

아마도 판도리고향집에서는 한창 흥성이리라. 가족, 친척들이 두루미가 새겨진 자기 집의 대문턱을 넘어 모두 모여앉았으리라.

고향집의 그 웃음, 그 노래소리가 들려온다.

비슈와나스는 마음속에서 울리는 그 웃음, 그 노래소리를 혼자 느끼며 밤거리를 스적스적 걸어갔다. 아직은 집도 없고 혼자서 명절의 밤거리를 거닐고있지만 사방에 명멸하는 불빛은 래일을 생각하는 그의 마음속에 삶의 불길을 소리없이 활활 지펴주고있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있었다. 저 멀리 구름은 움직이고 있는듯 했으나 바람은 없었다. 인생을 랑만적으로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모두 그러하듯이 비슈와나스도 자기를 둘러싸고있는 이 세계가 아직은 하나의 아름다운 수수께끼같이 안겨오는것이였다. 그는 미구의 희망을 안고 불축전으로 떠들썩한 도시의 음향을 혼자서 듣고있었다. 이제 자기에게도 집이 생기고 가족들과 동료들이 모여 전통적인 민족의 모든 축전을 한껏 즐길 그런 날이 오리라고 믿으면서…

그 다음날인 11월 7일이였다.

비슈와나스는 오래간만에 고급외출복을 차려입었다. 이날에 그는 쏘련대사관의 공식적인 초청장을 받았던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날에 자기가 쏘련대사관으로 들어간다는것만 알았지 이날에 자기 조국의 초대수상과 악수를 나누고 세계 여러 나라의 공식적인 외교사절들과 통성하게 될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이날에 쏘련대사관에서는 주재국의 각료들과 외교사절들을 초청

하여 대연회를 차렸던것이다.

파쑈도이췰란드와의 전쟁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후의 력량편성에서 주도권을 잡은 쏘련은 당시 자기의 당당한 권위로 인기를 모으며 국제적지반을 나날이 확장해가고 있었다. 바로 그러한 쏘련이 마음먹고 마련한 국경절경축연회였다.

이 연회장에 들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쏘베트 땅》이 한부씩 배포되였다. 역시 쏘련사람들은 할줄 알았다.

새로운 잡지의 창간은 이들모두에게 새로운 화제를 안겨주는데 충분하였던것이다. 그 화제란 갈데없이 쏘련의 혁혁한 성과들에 대한것이였다. 그 외교마당이 쏘련의 대사관임에야 더 말해 무엇하랴. 그것으로 하여 연회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활기를 띠는듯싶었다.

공식적인 연설들도 끝나고 연회장의 분위기가 한창 화기애애해질 때 에피모브는 비슈와나스를 주탁에로 이끌어갔다. 거기에 있던 쏘련대사가 비슈와나스를 알아보고 매우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그를 함께 앉은 쟈와하를랄 네루앞에 내세우는것이였다.

《수상각하! 이 젊은분이 바로 이번 우리의 〈쏘베트 땅〉의 창간호 편집발행을 성심껏 도와준 주재국의 젊은 기자 비슈와나스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전우가 주재국에 있는데 대하여 우리는 수상각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쏘련대사는 일어서서 비슈와나스를 수상에게 소개하며 외교적례의를 깍듯이 차리는것이였다.

《아, 그런가!》

머리에는 창이 없는 간편한 흰모자를 쓰고 닫긴옷을 입은 수상은 쏘련대사의 감사의 말을 듣고 저으기 만족한듯 앉은자리에서 젊은 비슈와나스를 눈여겨보며 손을 내미는것이였다.

《자네 앞으로도 잘 도와주라구.》

비슈와나스는 처음으로 긴장해졌다.

꼿꼿이 서서 수상과 악수를 나누었을 때 기다렸던듯이 술이 절반씩 부어져있는 크지 않은 세개의 잔을 받쳐든 남자접대원이 그들의 옆에 다가와섰다. 수상은 일어서며 먼저 그 잔을 들었다.

너무도 뜻밖의 일에 부닥친 비슈와나스는 몸둘바를 몰라하며 수

상과 쏘련대사를 따라 서둘러 잔을 들었다. 비슈와나스는 수상과 함께 잔을 찧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비슈와나스는 수상과 쏘련대사의 몸가짐을 따라 잔을 입에다 가져다대였고 또 그들이 하는대로 그것을 접대원이 그냥 받쳐들고있는 작은 쟁반우에 놓았다.

황송하였다. 세계적성격을 띠는 이렇게 큰 연회에 처음으로 참가하여 이름있는 네루수상의 접견을 받을줄은 정말 몰랐다.

쟈와하를랄 네루는 독립전부터 국민의 눈길을 끌어온 선망의 대상이였다.

비슈와나스는 그의 자서전 《인디아의 통일》을 읽은바 있었다. 네루는 인디아독립을 위한 견결한 활동가였으며 국민대회당 지도자의 한사람으로서 인디아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마하트마 간디를 계승한 사람이였다. 그는 간디 다음으로 영향력있는 사람으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고있었다. 그의 아버지 오티알 네루는 인디아민족주의운동의 지도자의 한사람이였다.

쟈와하를랄 네루는 반영선동으로 하여 자기 생애에서 10년이상의 감옥생활을 하였고 반제련맹에도 적극 협력하였으며 사회주의10월혁명 10돐때에는 쏘련에 가서 기념행사에 참가하여 레닌을 높이 평가한 사람이였다. 그는 여러번 외국을 방문하여 서유럽의 반제, 반파쑈력량과 인디아민족운동과의 련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는 쏘련을 지지해왔다.

이러한 네루였기에 그는 인디아의 독립과 함께 나라의 초대수상으로 선출되였으며 생애의 말까지 수상 겸 외무상으로 있었다.

쟈와하를랄 네루는 미래의 인디아를 사회주의로 보고있었다. 그 길로 가는 방법을 그는 계급투쟁이 없이 사회적타협의 방법으로 간주하였으나 사회주의를 지향한 그것으로 하여 그는 집권 전기간 인민경제에 대한 국가의 조종을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며 그에 의하여 작성되고 실시된 경제, 사회문화시책들은 인디아에서 식민지적 및 봉건적구조를 개편하는 시초로 되였다.

쟈와하를랄 네루는 장구한 식민주의자들의 억압을 박차고 민족적독립을 쟁취한 나라를 새 사회를 위한 길로 이끌고있었다. 그는 유구한 전통을 가진 인디아문화의 새로운 재건을 촉구하였다.

비슈와나스는 이렇듯 뉴델리에서의 첫시작부터 외교석상에서 명망높은 정부수상의 지지를 받는 인물로 되였다. 이것은 미구의 그의 활동에서 아주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주는 또하나의 기회로 되였다.

주탁에서 물러난 비슈와나스는 에피모브의 안내를 받으며 뉴델리에 주재하고있는 각 나라 대사관의 친선 및 문화관계자들과 자연스럽게 통성하게 되였다.

인디아는 독립하기 전인 1940년대초에 이미 쏘련, 카나다를 비롯한 일부 나라들과 대사관계를 맺고있었던것이다. 그것이 그때 영국식 민주의자들이 준 이른바 《자치》의 표현으로 되는것인지도 몰랐다.

인디아는 대다수 사회주의나라들과는 일반적으로 독립이후에 외교관계를 설정했다.

그때 비슈와나스의 나이는 21살이였다.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는 수도의 이 거리에 발을 들여놓을 때 그가 나라의 수상과 각료들 그리고 각국의 외교사절들과 통성하게 되리라고 생각이나 하였겠는가.

못하였다. 그러면 그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만큼 젊은 나이에 세계에 대고 자기의 이름을 소개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하였는가. 아마도 그것은 인생의 첫 단계부터 이 세상을 성실하고 진취적으로 대해오는 그의 남다른 열정이 가져온 결과라고 해야 할것이다.

이날은 참으로 벅찬 하루였다. 흥분과 긴장, 희망과 열정을 다 체험한 기가 막힌 하루였다.

옛스러운 바라캄바거리도 이날에는 한결 환하게 보였다. 그의 가슴속에는 끝없이 펼쳐진 운명의 길에 이제는 확고한 첫걸음을 내디딜수 있게 되였다는 이름못할 환희가 폭포치듯 스며들고있었다.

젊은 나이에 다른 사람들의, 그것도 정부의 각료들과 각국의 사람들의 중시를 순간에 받아안은 비슈와나스의 심장은 흥분으로 세차게 고동쳤다.

다른 사람의 중시를 받으려고 하는것은 누구나 바라고있는 인간의 심리이다. 역시 인간의 충동가운데서 제일 강렬한것은 중요인물로 되려는 욕망인듯싶다.

비슈와나스의 마음속에 항시 날고있는 고향집의 그 두루미는 샤

르마가문의 광활한 령지가 펼쳐져있는 판잡주의 하늘을 떠나 이렇게 《유토피어》세계의 하늘에 자유롭게 들어서게 되였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마음속 그 두루미가 어디에 깃을 내리겠는지, 그처럼 자유와 평화를 갈망하는 자기의 걸음이 이 세상 그 어디에 가닿게 될것인가는 아직 알지 못하였다.

6. 생활은 생활이다

인간의 모든 생활에 물질이 안받침되여있음을 이 세상 그 누가 부정할수 있으랴.

그래서인가, 력사의 갈피갈피에 그것을 둘러싸고 벌어진 충돌의 흔적들이 새겨진것은…

그 충돌은 기본 계급간의 모순이였다.

그래서 맑스가 《자본론》에서 전면적으로 해명한 잉여가치에 관한 학설은 자본주의기본경제법칙을 밝히고 자본주의착취의 비밀을 폭로한것으로 하여 로동계급의 혁명투쟁력사에 그 의의를 뚜렷이 새겨놓은것이리라.

인간은 누구나 력사를 관망하며 그 력사속에 산다.

산다는것은 생활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 세상 그 누구에게 있어서도 생활은 례외가 아니다. 생활과 완전히 동떨어진 사람이 그 어디에 있으랴.

비슈와나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자유와 평화, 진리의 길을 모색하는 그의 리념 역시 그 생활속에서 무르익는것이였다.

호화생활은 하지 않았지만 뉴델리에 와서 어느덧 석달이 흐르는 사이 그의 주머니는 점점 들장나기 시작하였다. 생활을 말로써 대신할수는 없는것이다.

랭정한 현실은 걸음마다 돈을 요구하였다.

어디에 가서 돈을 꾸어온담?

아무리 생각해도 이 도시에선 어디 가서 돈을 꿀데도 없었다. 설사 돈을 꾼다 해도 노예로 되는 그런짓은 하고싶지 않았다. 하지만 생활은 그의 의사에는 관계없이 걸음마다 그를 엄습해왔다.

출발은 컸는데 내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다니?!

처음으로 궁핍한 생활에 맞다들린 비슈와나스는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고 조바심에 가득찬 마음을 안고있었다.

부모에게?

왜서인지 고향에는 전보를 치고싶지 않았다. 부모에게는 자력으로 이 세상을 걸어갈줄 아는 자식의 어엿한 모습만을 보여주고싶었다.

쏘련대사관에?

거기에는 죽어도 손을 내밀어서는 안되였다.

노력하면 보수가 온다고 하였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에피모브도 비슈와나스도 둘다 일체 입밖에 내지 않고있었던것이다.

돈에 대해서는 누구나 생각하고있으면서도 누구나 쉽게 말하지 않는가보다. 특히 지성인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아마도 그것은 돈만이 아니라 도덕과 륜리의 흐름으로 이어지는것이 또한 인간생활이기때문이리라.

돈을 앞세운다면 그런 인간관계는 돈과 함께 끝나지만 신뢰와 우의, 덕을 앞세운다면 그뒤엔 반드시 더 큰 보수가 따르게 되는것이다.

속에 구렝이가 들어앉은 이 두사람은 서로가 보수에 대한 말은 한마디없이 일정한 기간 지탱하면서 정말로 상대방이 함께 한길을 갈수 있는 사내인가를 가늠해보고있는지도 모를 일이였다.

배운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제의 오묘한 수완은 역시 지성이다.

비슈와나스는 설사 금전이 안들어올망정 자신의 지체를 낮추고는싶지 않았다. 그의 빈주머니는 곧추 서지 않았지만 자존심만은 빳빳이 서있었다.

인쇄비만을 지불하고있던 에피모브의 입에서 드디여 보수에 대한 말이 나왔다. 그날은 《쏘베트 땅》 제3호가 발행된 1948년 1월초의 어느날이였다.

새해의 첫 호에 맞게 편집된 잡지를 번지며 앞으로의 편집방향에 대한 이런저런 말을 하던 에피모브는 이제서야 생각난듯이 흔

연하게 돈문제를 꺼내는것이였다.

《당신 로임을 얼마나 요구하는가?》

비슈와나스는 로임이라는 말이 왜서인지 좀 귀에 거슬렸다. 그것은 그 말이 은연중에 내가 여기에 고용되였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기때문이였다.

현재 주머니는 비여있어도 나는 결코 돈과 재산이 없거나 또한 그것이 탐나서 뉴델리에 와 혼자 돌아가고있는것은 아니지 않는가. 나는 다만 무엇인가 큰일을 하고싶을따름이다. 나는 남에게 고용되는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어려서부터 몸에 푹 배인 천성이였으며 한생을 관통하고있는 철칙이였다.

하기에 그는 오늘도 자기가 주체사상을 따르는것은 조선에 고용돼서가 아니라 자기의 심장이, 온넋이 그것을 신념으로 받아들였기때문이라고 세상에 대고 거침없이 말하고있는것이다.

원래 그는 자존심이 강한 사내였다. 그런 사내는 평생 그 누구앞에서도 숙어들지 않고 세상을 제 마음대로 쥐락펴락해야 시원해할상싶다.

에피모브는 오늘에야 비로소 로임소리를 슬쩍 꺼냈지만 비슈와나스의 눈에 반가와하는 빛이라고는 전혀 비끼지 않는것을 보고 내심 놀라와했다. 돈이 없으면 한걸음도 걸어갈수 없는 이 세상에서!

유럽에는 돈없는 사람을 이발없는 승냥이에 비유한 속담이 있다. 이발없는 승냥이가 무슨 일을 치랴.

하지만 비슈와나스는 뻣뻣했다.

흔히 생활에서 잔말이 없고 상대방의 말을 시원하게 받아들이는 성미인 비슈와나스였지만 이번에는 주겠다는 그 말에도 실퉁해하며 이렇게 대꾸하는것이였다.

《내가 무슨 여기 직원이라고 로임을 받겠소.》

그때에야 비슈와나스의 속생각을 알아챘는지 에피모브는 소리내여 웃으며 자기 말을 다시 정정하는것이였다.

《아, 로임이 아니지. 도와준데 대한 사례라고 해야 할걸 내가 잘못 표현했네. 사례는 응당 받아야 하네.》

《그렇다면!》

그제서야 승낙한다는듯이 내키지 않는듯한 표정을 지으며 내뱉는 비슈와나스의 말투는 너와 나는 동등한 지위라는것을 강조하는듯싶었다.

돈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이 되지만 타고난 기질은 돈으로 흥정할수 없는것이였다.

《그래 얼마를 요구하나?》

《요구는 무슨 요구?》

비슈와나스는 여전히 태연자약하였다.

《그래도 생각하는것이 있겠지.》

《아니, 당신들 마음대로!》

나이는 어리지만 끝까지 배포유한 비슈와나스의 태도에 감동되였는지 아니면 위축되였는지 에피모브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하였다.

《그럼 한달에 300루삐씩하면 어떤가?》

《아무렇게나.》

이것으로 서로가 3달동안이나 말해오지 않던 실무적인 문제가 락착되였다.

그리하여 비슈와나스는 그자리에서 3달분의 사례금인 900루삐의 돈을 받게 되였다.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액수였다. 그때 비슈와나스의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변화도 없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부모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생활을 이어갈수 있게 되였다는 안도의 숨이 나가고있었다.

그다음에야 싼또쉬 꾸마리가 문뜩 생각났다.

이 세상에 자기를 기다리는 녀성이 있다는것은 얼마나 황홀한 일인가!

바삐 돌아갈 때에는 전혀 생각나지도 않더니 정작 돈을 쥐고 보니 그와 한 약속이 생각났고 또한 그 약속을 지킬수 있게 되였다는 자부심으로 은근히 가슴이 설레이기까지 하는것이였다.

사람이 공기만을 마시고는 살수 없지 않는가.

역시 생활은 생활이였다. 비슈와나스는 우선 그 돈으로 뉴델리중심에 아빠트 2칸짜리 집을 세내였다. 세집이였지만 그래도 이제

사 그에게 편지를 받고 보낼 번지가 생긴것이였다. 그 번지는 그가 틀림없이 뉴델리에 발을 붙였음을 나타내는 표적과도 같은것이였다.

비슈와나스는 그 주소를 달고 편지를 날려보냈다. 라호르로, 판도리비비로…

그 주소로 편지가 날아들었다. 인간생활이 시작된것이였다. 보다 넓고 붐비는 뉴델리에서의 생활이.

비슈와나스는 둘이 살기에는 넉넉한 그 집으로 싼또쉬 꾸마리를 데려올수 있었다. 집세는 한달에 40루삐면 되였다.

이때에 싼또쉬 꾸마리는 안경을 끼고있었다. 사실 눈이 나쁜데 안경을 벗고있자니 참기 어려웠던 모양이다. 비슈와나스는 픽 웃고말았다. 이런것 역시 생활인지.

가정은 어떤 경우에도 지키는데 그 뜻이 있다.

싼또쉬 꾸마리는 《쉬바신》을 우러러 빌고빌었다. 그는 자기가 숭상하는 그 《신》이 악을 물리치고 둘이 함께 새살림을 편 뉴델리에서의 생활이 순조롭게 흘러가게 해주기를 기원하였다.

그때부터 비슈와나스는 가정을 싼또쉬 꾸마리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사회의 각 방면으로 활동의 폭을 넓혀나가기 시작하였다.

이때 인디아에서 대성인이라고 불리우는 마하트마 간디가 암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인디아에서는 힌두교도와 똑같이 이슬람교도들도 포섭하여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그의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1948년에 들어선 뉴델리의 공기는 험악할대로 험악해지고있었다. 그러자 그는 최후의 유일한 수단으로 또다시 단식투쟁에 들어가면서 모든 힌두교지도자들에게 호소하였다.

이무렵에는 전국민의 신망을 한몸에 지니고있던 그인지라 그가 단식까지 하며 투쟁하는데 감격한 힌두교지도자들은 흔연히 무릎을 꿇고 인디아땅에서 살고있는 모든 이슬람교도들을 보호하기로 맹세하였다. 그러나 역시 일부 힌두교도들은 불만을 억누를길 없어 간디가 살아있는 동안 인디아를 완전한 힌두교국가로 만들수 없다고 속단한 나머지 드디여 그해 1월 30일 10일간 단식을 마치고 기도하러 가는 간디를 총으로 쏘고야말았다.

간디는 극우익조직인 국민지원단의 한 성원이 쏜 3발의 총탄에 맞고 즉석에서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평생을 두고 인디아를 위하여 간고한 투쟁을 계속해오던 비폭력주의자이며 무저항주의자인 간디는 자기가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던 힌두교도들의 손에 의하여 숨을 거두었던것이다. 당시 그의 나이는 80이였다.

간디는 자기를 두고 《나는 성인도 아니며 정치가도 아니다. 나는 체험을 쌓고있는 사람이다.》라고 쓴바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후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사이의 대립을 완화하기 위하여 애타게 노력한 간디였으나 그는 종내 교도들에 의하여 그렇게 암살되였다.

간디의 시체는 힌두교의 례식에 따라 뉴델리교외에서 화장하였는데 화장한 재는 간지스강에 그리고 인디아 최남단의 쿠마리갑부근의 인디아양과 아라비아해, 벵갈만이 합쳐지는 곳에 뿌려졌다.

간디의 화장식이 거행되는 라즈가트로 흘러드는 군중속에 비슈와나스도 섞여있었다. 몰려든 간디신봉자들은 수만명을 이루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결혼》한 녀성이 제일 많다는 그의 이름을 실증해주고있는것인지.

많은 녀성들이 그와 마음속의 《결혼》을 하였다는것이다. 모를 일이였다. 녀성들의 마음을 끌어당기게 한 그 리유가 무엇인지?

그에게 대명사로 붙은 《마하트마》인가?

그 《위대한 넋》은 평등권획득을 위한 그의 《비폭력》, 《무저항주의》였으며 《불살생》, 《진리파악》의 구호였다.

정녕 그는 이기기 위하여 착하였는가.

그렇다면 그의 그 넋이 앙양된 민족해방운동을 왜 좌절시켰으며 식민지당국과의 모든 협상에서 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는가?

나약성의 로출은 민족이 바라는 모든것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많은 《결혼》자들도 결코 그를 보호할수 없게 하였던것이다.

비슈와나스는 조의를 표시하면서 다시한번 이 세상의 모든 교파들이 서로 싸우지 않기를 바라마지않았다. 그러면서 그는 줄곧 마음속으로 이 세상의 서로 다른 교파들과 당파, 학파들을 다 포섭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그릇, 넓은 리념은 없을가 하고 생각하였다.
생활은 멈춤없이 흘러가고있었다.
해가 바뀌면서 비슈와나스에게 첫 자식이 태여났다. 딸이였다. 첫딸은 금주고도 못산다는 말이 있듯이 모두가 귀해했다. 그 딸의 이름은 닐람이였다. 비슈와나스도 그 첫딸을 고와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집에 있는 날보다도 밖에 나가있는 날이 더 많았다.
아이는 싼또쉬 꾸마리가 전적으로 키워갔다. 역시 녀자는 안으로 돌고 남자는 밖으로 도는 존재인듯싶다.
비슈와나스는 《쏘베트 땅》을 더욱 힘차게 걸구어갔다. 그는 쓰딸린시대의 번영하는 사회주의쏘련의 모습을 글과 사진으로 밤가는줄 모르고 편집해나갔다.
쏘련이 진행한 첫 원자탄시험의 성공!
1949년의 이 놀라운 사변은 당시 세계를 법석 들끓게 하고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세계는 쏘련과 미국을 각각 축으로 하여 뿔럭을 조성하면서 《랭전》의 바람을 몰아오고있었으니 충분히 그럴만한 일이였다.
그때 미국신문들에는 쏘련이 원자탄을 가지기 전에 쏘련에 원자탄을 써야 한다고 고아대는 일련의 상원의원들의 주장을 실은 글들이 수두룩하게 나오고있었다. 서방의 모든 출판물들은 로씨야사람들이 원자탄을 만들려면 10년이상 지어는 20년이상 걸릴것이라는 나발을 꺼리낌없이 불어대고있었다.
그런데 쏘련이 전후 이처럼 빠른 시일에 원자탄을 만들었으니 10월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지킬 위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로 세계가 인정해야 하였다.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의 비극, 미국의 열핵전쟁위협이 쏘련으로 하여금 자기들의 지식과 경험을 열핵무기를 만드는데 돌리게 했던것이다.
뒤이어 진행된 수소탄제작의 성공!
이것은 미국보다 늦게 핵분렬폭탄을 성공한 쏘련이 미국보다 먼저 핵융합폭탄을 성공하였음을 알리는 또하나의 사변이였다.
《쏘베트 땅》은 이 모든것을 담으면서 자기의 《령지》를 온 나

라, 온 세계에로 점점 확대해나가기 시작하였다. 발행부수가 늘어나면서 그는 출판기지도 샥퉈출판사에서부터 인디아공산당출판사인 뉴 에이쥐(새시대)로 옮기였다. 물론 여기서는 인쇄만 하였고 판권은 어디까지나 쏘련대사관에 있었다. 처음에 영어로만 발간되였던 이 잡지는 1년후부터 힌두어로도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날이 갈수록 비슈와나스에게는 더 많은 일거리가 기다린듯이 나섰다. 쏘련대사관을 중심으로 맺어지는 인디아주재 사회주의나라들의 각 대표부들에서 저마다 비슈와나스에게 출판을 의뢰해오기 시작하였던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젊고 수상의 신임을 받는 비슈와나스가 막강한 힘을 가진 출판업자나 되는듯이 생각하고있는 모양이였다. 그도그럴것이 《쏘베트 땅》은 그 형식과 내용이 더욱 다양하게 편집발행되는것으로 하여 광범한 독자들의 인기를 모아가고있었던것이다.

혈기에 넘치는 비슈와나스는 밤에는 책을 읽고 낮에는 또 이리저리 뛰여다니며 정신없이 지식의 샘을 생활에서 한껏 들이마시고있었다.

의뢰해오는 일감들을 이제는 혼자서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였다.

그는 기업을 꿈꾸기 시작하였다. 단번에 기업을 차려놓을수는 없으니 우선 그 일환으로 자그마한 회사같은것을 하나 내오는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대방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자기의 기업이 없을 때에는 그에게 얹히우기마련인것이다.

자기 앞길을 개척하자면 우선 자기의 힘이 있어야 한다. 자기의 노력, 자기의 힘을 믿을수 있다고 생각될 때 드놀지 않는 신심과 배짱이 생기는것이다.

비슈와나스는 자기의 힘을 키워 자기의 노력으로 모든것을 이룩해나가고싶었다. 그럴 때만이 래일을 확신성있게 설계할수 있었고 또 그대로 내밀수 있는것이였다.

젊고 불타는 심장은 지칠줄을 몰랐다. 자체로 펌 하나 설립해야 한다는 결심은 이제 더는 미룰수 없는 실천적인 문제로 나섰다.

의지는 확고하나 경험이 없었다. 그러나 해야 했다. 그것이 자기가 사는 길이였고 또한 사회주의를 돕는 길인 동시에 자기가 사회주의에로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무은것이 5명의 동료들을 망라한 자그마한 그룹이였다.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사명을 지닌 집단이므로 명칭과 사무실, 직제가 있어야 했다. 생각던 끝에 명칭은 《인터라즈》(광고주식회사)라고 하였다. 하지만 말이 주식회사이지 거기에는 주주가 따로 없었다. 모두가 비슈와나스를 도와서 함께 일하고 수입금이 있으면 함께 나누기로 한 동료들의 회합일뿐이였다.

《인터라즈》는 그저 흔히 그 사회에서 대기업들이 취하고있는 주식회사의 이름을 가졌을뿐이였다. 물론 그 《인터라즈》가 오늘날에는 《트리뷴》이 전하고있는것처럼 《림까세계기록집》에 오른 유일한 광고주식회사로서 세계각지에 30억루삐에 해당되는 광고제국을 이끄는 대기업체로 되였지만 설립당시에는 이렇듯 소규모적이였다.

시작은 모두 작다. 하지만 큰일도 작은데서부터 시작되며 가장 높은 곳도 가장 낮은데서부터 톺아오르기마련이다.

사무실은 뉴델리 아싸프 알리(인디아의 애국투사의 이름)거리에 있는 한 기업쎈터의 크지 않은 방 하나를 세내여 마련하였다. 그리고 《인터라즈》의 조직기구는 주식회사가 하는것처럼 리사회가 운영하는것으로 하고 비슈와나스가 리사장의 직분을 맡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의 친구인 에쓰. 피. 쵸프라의 지위를 리사장의 대리인격으로 정했다. 물론 이 모든것은 당시에는 정부의 인정도 없이 5명의 그룹성원들이 합의한데 불과하였지만 그들은 모두가 시작부터 각자에게 맡겨진 일거리를 안고 분주히 뛰였다.

일은 시작할 때가 언제나 좋다.

자그마한 소득을 놓고도 그들은 기뻐하며 서로 경험을 나누었다.

때는 1951년이였다.

동방의 크지 않은 나라 조선에서는 힘겨운 전쟁이 한창이던 때였다. 쏘련대사관에 드나들면서 사회주의나라들의 소식통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던 비슈와나스는 해방된지 5년만에 전쟁을 치르는 동방의 이 작은 나라가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에 과연 견디여내겠는가 하는 의문도 없지 않았다.

비슈와나스가 처음으로 미국인을 본것은 라호르에서였다.

라호르에는 크리스챤 칼레지라는 미국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평화의 사도》들이 언제나 선량한 웃음을 짓고있었다.
그들의 그 웃음은 정말로 선량한 인디아의 많은 학생들을 그 학교에 모이게 했다.
미국의 허울은 그럴듯하였다. 그들은 저들의 《공적》에 대해 쓴 책들을 내돌렸다. 그 책들은 돌고돌며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는, 모두가 진리를 말하고 실천하는 나라라는 인상을 주었다.
그들은 아메리카대륙에 몰려든 저들의 조상들이 원주민인 인디안들에 대한 인간도살만행을 어떻게 감행했으며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주검우에 어떻게 솟은 나라라는데 대해, 세계의 곳곳에서 평화의 모자를 쓰고 웃고있는 저들이 막뒤에서 무력간섭과 전복음모를 어떻게 꾸미고있는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오죽하였으면 오스트리아황제가 일찌기 《이 세상 소란스러운 곳에는 언제나 미국인이 있었다.》라고 말하였겠는가.
청소한 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을 위시한 련합세력들과 단독으로 맞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있었다.
과연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될것인가.
온 세상이 그런 눈길로 조선을 주시하고있던 때였다. 잘못하면 아시아대륙에서 또하나의 약소민족이 워싱톤의 희생물이 되는 비극이 빚어지지 않겠는가 하고.
그러나 생활에서는 예상을 뒤집어엎는 때가 있다. 조선전쟁이 바로 그러했다.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하고있는것은 조선이 아니라 미국이였다.
놀랍게도 조선인민은 전쟁의 시련을 이겨내고있었으며 마침내는 3년간의 전쟁에서 침략자의 멱통을 누르고 승리를 선포하였다.
미국은 조선에서 38°선을 방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시아전역을 한 끝에서 다른 끝까지 갈라놓는 더 큰 다른 분계선을 둘러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었다.
이것은 제국주의의 무서운 분계선이다.
그처럼 음흉하고 포악한 미국이 역시 조선도 둘로 갈라놓았다. 조선을 통채로 먹고 아시아적인 더 큰 분계선을 만들려던 미국

은 조선전쟁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패했던것이다.

세상사람들은 갓 일떠선 조선인민이 결코 약소민족이 아니라 영웅적인민이라는것을 깨닫게 되였다.

비슈와나스도 조선에 대한 인식은 그것이 전부였다. 청소한 나라는 그이상 알려진것이 없었다. 또한 그는 그이상 생각할 경황도 못되였다. 비슈와나스는 넘쳐나는 일거리를 안고 바삐 뛰였다.

생존경쟁의 자연법칙이 작용하는 각박한 세상을 빤히 알고있는 그는 남의 도움이란 애초에 바라지 않았고 오직 자기의 기업을 자기가 창설하기 위하여 실로 피타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각자의 운명은 각자의 손안에 있는것이다.

비슈와나스는 낮에는 여기저기 출판기지들을 돌면서 계약을 맺었고 밤에는 사회주의리론도서들과 기업경영도서들을 날이 새도록 읽었다.

사람은 의지와 함께 실력이 있어야 하는것이다. 불패의 기업을 창설하기 위해서는 정치를 알아야 했고 또한 과학리론적으로나 경영실무적으로나 누구보다 높은 위치에 서있어야 했다. 일은 직위나 말로써가 아니라 실력과 실천으로 하는것이다.

그는 만난을 극복해가며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게 맺었다.

뉴 에이쥐출판사와는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가 되였으며 그외 다른 인쇄기지들에도 동료들이 늘어갔다.

《인터라즈》성원들은 비슈와나스의 지령에 따라 여기저기로 분주히 원고들을 날라갔으며 또한 인쇄물들을 날라왔다. 대부분의 인쇄물들이 쏘련대사관을 비롯한 체스꼬슬로벤스꼬(당시), 벌가리아, 마쟈르, 뽈스까, 중국 등 사회주의나라 대사관들에서 주문한 소책자들이였다. 사회주의나라들이 활기를 띠며 승승장구하던 시기이므로 일거리가 딸릴 걱정은 없었다. 기업적인 측면에서 놓고 볼 때에도 그는 시대의 흐름을 아주 잘 탔다고 해야 할것이였다.

비슈와나스는 쏘련대사관으로부터 《쏘베트 땅》의 편집을 위한 자료들을 정상적으로 제공받고있었다.

사회주의쏘련의 위력의 시위는 계속되고있었다. 1950년대에 쏘련은 자기의 힘을 더 크게 과시하면서 국제적지반을 공고하게 다져나갔다.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원자력쇄빙선의 출현, 첫 대륙간탄

도로케트발사시험에서의 성공, 첫 인공지구위성의 성과적발사…

세상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이 모든 격동적인 사변들이 《쏘베트 땅》에 구체적인 사진자료와 함께 빠짐없이 실리였다. 《쏘베트 땅》의 편집사업은 비슈와나스에게 있어서 사회주의의 힘에 대한 정신적지주를 더욱 굳게 해주며 그를 그길로 떠밀어주는 원동력과도 같은것이였다.

가장 발전된 공업국가가 아닌 조건에서도 이처럼 놀라운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는것은 중요한 문제들의 해결에 힘을 집중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말없이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로 되는것이였다.

《쏘베트 땅》은 흥성이며 자기 일로를 걸어갔다. 비슈와나스는 사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그 《땅》의 알려지지 않은 경영자였다고 해야 할것이다. 그 《땅》에서의 수확물이 얼마나 생활을 안받침했든지간에 그것은 이래저래 좋은 일이였다.

그는 생활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는 생활을 맞받아나갔고 창조하였고 즐기였다.

다년간 그 자료들을 읽고 편집하면서 그는 사회주의쏘련의 모습을 직접 제 눈으로 보고 그 사회를 체험해보리라고 속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그에게 드디여 쏘련에 갈 기회가 왔다. 따쓰통신사(이전)에서 정치도서와 친선관계에 관한 책들의 출판문제토론과 관련하여 그를 초청하였던것이다. 이러한 기회가 반드시 오리라고 믿고있던 비슈와나스는 그 초청에 쾌히 응하였다.

많은것을 알기 위해서는 많은것을 보아야 하는것이다.

이리하여 그는 1954년 1월(인디아에서 비가 제일 적게 내리며 북동계절바람이 부는 시기)에 첫 출국의 걸음을 사회주의쏘련으로 내짚게 되였다.

제 뜻을 가지고 제 갈 길을 한번 가보자. 하늘이나 공기처럼 길도 사람을 위해 있는것이다. 길이란 사람들에게 완전한 자유의 감정을 자아낸다.

계속 가보자, 모스크바로!!

끝없는 창공을 향하여
찬란한 광명을 향하여
자유의 공기를 향하여
태양의 빛을 받아
자유의 깃 펼친 새야
날으라 우주의 한끝까지